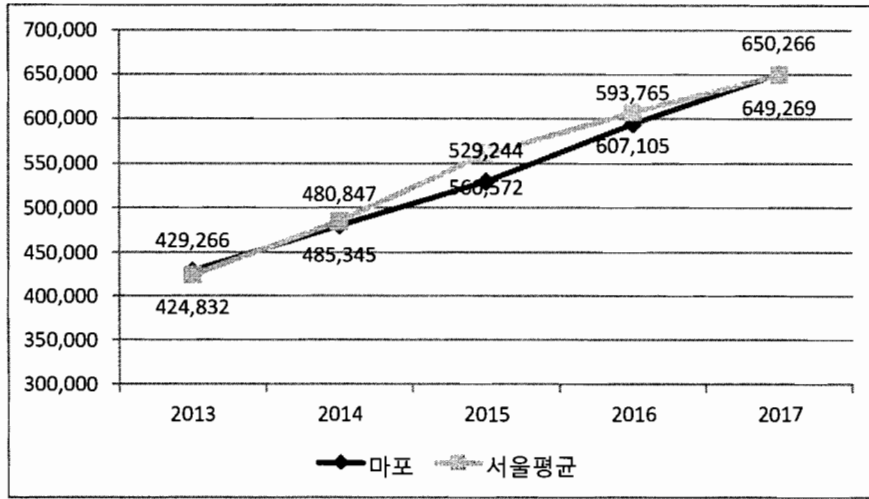


[그림 2-34] 마포구 1인당 사회복지예산

(단위: 원)



자료: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2) 상위계획분석

□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반영될 필요가 있는 다음의 복지 관련 상위계획 및 유사계획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의 8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이와 별도로 돌봄 영역의 중요 추진 계획인 커뮤니티케어 계획을 살펴 봄

3기 분석대상 상위계획	4기 분석대상 상위계획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3차 계획 장애인복지발전 5내년 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3차 아이사랑플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방향 서울시 주거복지종합실행계획 서울형그물망복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 지역자활지원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제16차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서울시 보육 중장기 종합계획 서울시 청소년사회안전망 계획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

(1) 영유아

① 서울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서울시의 보육환경과 서울시민의 보육욕구 분석에 따른 서울시 보육정책 목표

-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30% 달성, 서울형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부모의 양육비 경감을 위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관리 등을 추진함.
- 다양하고 촘촘한 돌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시간제 보육 및 시간연장 보육 활성화, 다문화, 장애인 통합 보육 내실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체계화 및 활성화를 진행함.
- 아이행복, 부모안심의 보육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의 운영이 투명하도록 맞춤형 컨설팅 제공, 어린

이집 관리시스템 확대 보급, 아동학대 방지대책 시행, 어린이집 대상 전문안전관리(건강, 음식, 위생 등) 체계 도입함.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교직원 직급체계 마련, 교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진행,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축소 추진, 보육교직원 근로기준(안) 마련 및 보급. 대체교사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함.
- 돌봄친화적 지역문화 및 협력체계 조성을 위해 자치구 보육거버넌스 구축,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확대, 어린이집 부모교육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내실화 등을 도모함.

② 중앙 정부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저출산 지속으로 전체 영유아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와 출산·육아로 인한 가정의 부담이 여전하고,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작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성, 어린이집 시설이 감소하면서 구조조정의 양상이 나타나는 등의 환경적 변화가 고려됨.
- 정책적으로는 무상보육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적정 이용 보장에 한계가 발생하고, 양적·질적으로 어린이집의 공공성 수준이 낮은 현상,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이 미충족되고 있음. 보육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역적 균형 확충을 통해 양적인 공공성을 확보함.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이행제도의 강화와 직접설치 지원을 확대함. 원장의 자격 강화 및 공공형 관리 확대 등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함.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2017년 14%에서 2022년에는 40%까지 끌어올림
-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2016년 81.5%에서 2022년 90%까지 확대
- 열린어린이집 2017년 1,859개소에서 2022년 5,750개소로 확대

□ 보육체계 개편

- 보육체계 개편을 위해 부모의 어린이집 적정이용을 위해 보육서비스 이용여부, 이용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체계 개선함. 누리과정 개편 등을 고려해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표준 보육과정, 표준보육비용 계측으로 이에 따른 적정 보육료를 지원함.
- 기존 6시간반, 12시간반의 맞춤형 보육을 2022년까지 보육지원시간 다양화로 전환함.
- 2014년도에 맞추어진 표준보육비용기준을 2022년까지 재계측 함.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유치원과의 교사자격, 시설환경 등의 격차 해소를 통해 어린이집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보육교사 양성과 질적 수준을 담보를 위해 학과제를 도입함.
- 학점제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학과제 교육제도로 전환함.
- 2017년 2.1만명 수준의 보조대체교사를 2.8만명 수준으로 2022년까지 끌어올림.
- 신청제인 평가인증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강화

③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아동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0세아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20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2) 아동·청소년

① 중앙정부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 가족구조와 양육환경의 변화로 가족 다양성과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문화 교육제도 개혁 등에 대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제도 도출 필요함. 학교폭력, 아동 성폭력, 소년범죄, 스마트폰 중독 등의 위험이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증가 등 발달환경의 위기가 심화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아동·청소년 발달에 관한 사회투자의 필요성 및 인식 차이로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에 대한 사회 구성의 이해부족과 중요성 인식이 약함.

□ 아동·청소년기 역량 강화

-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도록 하며, 문화예술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하고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독서기반시설(아동도서관, 작은도서관)을 강화함.
- 사고력 증진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함.

□ 교육과정 내실화

- 자유학기제 도입 및 학교 컨설팅 실시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함.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로교육을 지원하여 개인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시민교육 기회 확대, 양성평등 인식의 교육 병행,
- 초·중·고 자유학기제를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동아리 등 자율적 진로활동 활성화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가족, 교육, 성평등, 고용, 보건 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상호 연계한 정책 수립함.
- 각 시군구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 지원
- 자치단체별 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 권고

□ 건강관리체계 마련

-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하여 감염병 예방, 건강검진 제도 실효성 확보, 생활습관형 질병(비만, 근시, 치아우식, 흡연 등) 예방 관리 마련함.
-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하여 자살요인 및 심리부검 등 객관적 근거 마련하여 예방대책 및 인프라 구축,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하여 실효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함.
-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정서적 어려움 없이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강사 및 인프라 확대

□ 안전체계 마련

-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및 재난 및 사고 대비 관련 표준안 마련
- 사회 안전 위협 요인(범죄, 학대, 식품)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취약계층에서 안전한 환경 계층으로 전환을 도모함.
- 위기의 아동청소년 조기 발굴 - 진단 - 분석평가 체계의 고도화를 꾀함.

□ 나홀로(학교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 및 지원

- 주기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아동을 위한 방화후 돌봄체계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은 자립지원을 비롯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 최저임금 미준수 점검 단속, 특수형태 직종(배달 대행)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한 보호방안
- 청소년 작업장 활성화(목공예, 영상촬영, 바리스타 등), '내일이룸학교' 운영 활성화, 자립장려금, 교통비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으로 취업동기를 제고함.

(3) 여성

- 대중매체·온라인 상 성차별적 표현이나 성별 고정관념이 잔존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또한 높다는 판단과 성별 고용격차 해소 및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다각화가 필요함을 인식함. 일·가정 균형의 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사회적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해야 함.

□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성차별 실태 모니터링을 위해 양성평등 관련 동영상, 웹툰,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홍보 및 활용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민모니터링단, 방송모니터요원 등을 통해 감시 기능 강화함.
- 양성평등 가족문화,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 성평등 실천 등 생활속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가사육아의 부담을 강조하는 캠페인 강화, 명절문화 개선 캠페인 등 확대 실시함.
- 분야별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교육 제공기관의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종사자(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법조인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함. 이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허브기능 강화 및 지역 기반의 양성평등 교육 지원을 강화함.

□ 평등한 고용기회 및 여성 노동권의 보장

-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일자리를 확대함. 성별 직업분리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을 전 지방공기업 등으로 점진적 확대함.
- 고용 현장의 성차별 개선, 고용상 성차별 감독 및 구제 강화하기 위해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확대 추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직장 내 성차별 방지를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함.

-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개선을 위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 집중 직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 지표를 관리함. 성별임금차별 사건 권리구제 강화하고 가사·돌봄서비스 공식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함. 가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등 고용보호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도 정비.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을 통한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아이돌보미 등 임금수준 개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대부분인 공공기관 환경미화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휴식 공간 제공함.
-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 예방지원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함. 여성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및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를 도모함. 대학 등과 연계하여 청년여성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함. 여성기업과 여성 전문인력을 연계하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계획함.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 주요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 수립 추진함.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를 진행하고 개방형 직위 후보자를 선발하는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여성위원을 40% 까지 확대하고자 함.
- 정부위원회 대비 여성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지자체 위원회에 대한 개선 권고 실시
- 교육 분야 양성평등 임용 확대를 추진하며 여성 교장·교감의 비율을 확대함(전체 여성 교장 교감 비율 40% 이상 달성).

□ 일·가정 균형의 사회기반 조성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초등 돌봄 교실 내실화 및 단계적 확대를 통한 학교의 돌봄 기능을 강화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확대하고,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등을 확대하여 국공립 돌봄시설을 확충함.
-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바일 기반 '청소년 미혼모용' 사이트를 구축하고 임신초기 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 접근성을 강화함. 청소년 한부모 대상 생활설계, 경제활동 지원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함.
-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양육비 이행 지원을 확대함.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조정함.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을 연장함. 미혼모의 출산양육자립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책 마련.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학업중단 미혼모를 위한 위탁교육 및 물리적 환경 지원 확대함은 물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혼모에 대한 출석 규제를 완화함.

-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기업의 협력과 지역사회자원 활용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인프라를 확대함. 맞벌이 부모 지원 강화 등 지역사회 공동육아 확산을 꾀함. 국공립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함. 특히 설치의무가 없고 단독철시가 곤란한 중소기업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및 맞벌이 부모를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자 함.
-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 참여 제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등 우선 참여하도록 함.

□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 임신·출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지원을 강화함. 육아휴직 시기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함. 난임휴가 도입을 통한 모성 보호 강화,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육아휴직 복귀자의 연차 추가 보장, 대체인력 채용지원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 지속 지원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 함. 법정근로시간 준수(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도모함.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권리를 보장함.

□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형법의 명칭(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 변경 검토, 가정폭력 행위자와의 부부상담 및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등 제도 개선, 아동·장애아동 등 약자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가중처벌 등 추진함.
- 여성폭력 수사 및 사법적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부처(법무부 및 경찰청)와 긴밀히 협의, 공공기관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초중고 대학 내 여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진행
-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피해 대응 강화, 온라인 성범죄 등 새롭게 대두된 여성폭력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몰래카메라 촬영, SNS 유포 등 강력 대응
-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지원을 위한 연계 협업 강화, 1366 여성폭력 피해 초기대응 강화, 의료원, 응급센터 등 공공의료체계와의 연계 강화, 해바라기센터의 365일 24시간 원스톱 지원 강화를 꾀함.

(4) 노 인

- 노인복지정책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변화 추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 전환되었음.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이 진행중임. 풍부한 인적자원의 인구보너스기가 끝나고 인구가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오너스기로 이행되고 있다는 위기감과 2020년 까지를 인구절벽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저출산에서 초저출산 현상으로 저출산의 덩이 장수사회 진입과 맞물려 노인복지 정책 시행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됨. 유입되는 노동력의 부족, 기존 노동력의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잠재 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노후소득 불안정 등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수행의 배경으로 고려해야할 요인들이 다양함.

□ 노후소득보장 강화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신청 지원을 강화함. 대상 노인을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5년마다 기초연금액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지급액 조정(2019년).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제도 활성화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및 소득 증대를 꾀함(주택연금 가입자 수: 2015년 2.8만건 → 2020년 14.1만건).

□ 노후준비지원 확대

- 노후준비를 위한 상담·코칭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적절한 제공 기관과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진행함(보건소, 건보공단, 노인인력개발원 등).

□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을 위해 만성질환, 낙상·악화사고, 정신건강 등 질병예방 관리 강화시스템 구축하고,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의료전달체계 내실화를 꾀함(건강 백세운동교실, 운동용품 바우처, 고령자 체력인증센터, 고령친화적 시설개선).
- 치매, 장기요양, 포괄간호, 간병 서비스, 호스피스 활성화 등 의료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킴. 특히 높은 자살율을 낮추기 위한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함(노인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사례관리 등 진행).
-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저소득 노인 대상 의료비 지원 확대(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 고령자의 문화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참여 지원체계를 강화함. 고령자의 공익활동을 내실화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함(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노인대학·평생교육원 연계체계 구축).
-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효행장려 풍토를 조성하고 확산함.

□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여건을 강화함(무장애 시설, 응급비상벨 설치, 24시간 케어시설 확충,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함.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안심생활 지원을 확대함(학대노인 지킴이센터, 보호시설 지정운영).

(5) 장애인

- 인구대비 장애인구의 비율(5%, 251만명 수준, 2010년 이후)은 유지되고 있으나, 장애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고령화 장애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이 매년 증가. 기본적 시민권으로서의 복지수요가 동일하게 급증하고 있으며, 소득보장(41%) > 의료보장(27.6%) > 고용보장(5.1%) 순으로 나타남(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 당사자 운동단체는 3대 요구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주거·복지정책의 연계가 필요한 1인 가구 증가 추세(2011년 17.4% → 2017년 28.5%).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2008년 71천명 → 2017년 89천명).

□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도모함. 학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탈시설 지원센터 설치(중앙단위 2019년, 시도별 지역센터는 2020년 단계적 설치).
- 2019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 장애인에게 제공, 자립생활을 위한 비품과 생활필수품 마련 등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거주시설의 정원축소 유도, 거주시설의 소그룹 시설 전환 추진하고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기준 임대료 상향 조정하여 지원금 증액)을 강화함.

□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확대(소득수준에 맞는 본인부담금 조정), 상시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야간

순회서비스 확대 시행 추진(2020년).

-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2019년 30만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인원(연간 500명) 및 돌봄 서비스 지원시간 단계적 확대(2017년 480시간 → 2019년 600시간).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사업 확대함.

□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2018년 시범사업),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강화

-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환경 개선(2022년까지 특수학교 총 22개교, 특수학급 총 1,250학급 신증설).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다양화하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도서관 등 복합공간을 포함하는 등 상생하는 학교 설립 확대.
- 진로 및 직업교육의 전문화 추진으로 교육·복지·고용 협업 시스템을 구축함.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추진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함.

□ 문화·예술·스포츠 등 여가활동 기회 보장

- 여가활동 기회보장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 현실화(2021년 연 10만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극 권고함.
- 재활운동 및 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시설 조성하고 지도자 배치를 확대함.

□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2021년 30만원)하고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기초급여액 조정함. 장애특성, 연령 등을 고려한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2022년)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 유도 및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유인 제고를 위해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추진함.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기준을 강화함.
- 장애인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상향 추진함. 장애인 맞춤형 직업 훈련 인프라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체계화 방안 마련,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추진함.

(6) 저소득

-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악화 및 양극화 심화 등 빈곤문제는 제자리 걸음. 여전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상존하고, 낮은 보장수준, 근로유인 부재 등은 한계임. 향후 3년간, 빈곤문제 해소를 위해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을 통해 '빈곤 정책 방향' 제시.
- 노인 단독, 노인 부부 등 노인 가구의 소득이 가장 낮음(빈곤의 고령화). 한부모 가구, 청년 단독 가구(2005년 4.2% → 2015년 7.5%) 순으로 나타남. 특히 청년 단독 가구의 월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문제 악화, 안전판인 부모 세대의 빈곤 심화로 청년층의 '빈곤 대물림 현상' 우려됨.
- 저소득세대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면, 의료급여는 보장성 확대에 따라 수급자의 건강수준 이용량,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미충족 의료 등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비교 시 임차급여의 지원수준이 낮은 수준임. 교육급여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수준은 최저교육비에 훨씬 미치지 못함. 자활사업은 자활성공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보상이 낮아 자활 참여를 회피하고 비공식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조건 불이행자가 증가하는 추세임(2014년 2,204명/4.57% → 2016년 7,348명/11.8%). 이는 자활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자활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요구하는 지점임.
- 전체적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급여수준의 현실화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평가가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낮은 보장성의 수준, 수급자 자립지원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부양의무가 기준 완화

-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 90만명) 및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연차적 적용 제외(수급자 2016년 163만명→2020년 252만명 /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 2022년 20~47만명 까지 감소 전망).
-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탄력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개별 심의의 무화 추진함.

□ 저소득층 의료비 및 주거비 부담 경감

- 중위소득 40% 이하 비수급 빈곤층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단계적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준 적정 보장 방안 마련함.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보 가입자 중 소득하위 50% 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추진(최대 2천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2종 연 120만원 → 2018년 80만원), 중증치매환자 본인부

담 대폭 경감(2종 입원 10%, 외래 15% → 5%)

- 수급가구의 실제 입차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준입대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입차료 활용하여 산정.

□ 저소득층 교육 기회 보장

- 교육급여를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18년도부터 현재 중고생에게 지급하던 학용품비도 초등학생에게도 지급.
- 중장기적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사업 간의 소득·재산 조사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안 혹은 통합 방안 마련.

□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 경기변동 하에서 급여수준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하고, 적정 수준 보장을 위한 시설 생계급여 산정 방식을 합리화함. 중장기적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함.

□ 자활일자리 확대

-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 지원제도 개선 및 자활일자리 확대(2016년 45천개→2020년 49.5천개).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및 자활근로 종류 다양화 추진.
- 자활기업 지원 및 자활인프라 개편을 위해 600개 신규창업 추진(2020년 1,800개 목표)하고, 우수 자활사업단은 자활기금 지원 확대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 시 인센티브 확대로 사회적 기업 이행 지원함.

□ 청년 등 근로빈곤층 인센티브 확충

- 청년층 자립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생 및 만 25세 이하 청년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40만원 + 초과분의 30%로 확대)
- 고교·대학 졸업 후 취업 시에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기간을 기존 3년에서 고교 8년, 대학 5년으로 연장함.
- 사회보험 가입지원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본인부담분에 대해 현행 50%에서 75%까지 공제율 상향

(7) 지역 돌봄

- 보건복지부는 2018년 6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 증가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저하, 획일적인 서비스와 인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인 '커뮤니티 케어 추진 계획'을 발표함
-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기존 시설·병원에서 생활 중인 사람 중 입원·입소의 필요성이 낮은 자, 새롭게 입소·입원하는 사람 중 재가 생활이 가능한 자 등을 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를 핵심 추진 과제로 삼고 있음

-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확충
-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돌봄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20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를 목표로 경증치매 노인 대상 인지지원등급,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이 있는 노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통합재가급여 도입, 신규서비스 개발 등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이 커버하지 못하는 등급외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단계적 확충을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둠
- 사회서비스 연구 개발을 통해 영역별(생활지원, 안전, 정서 등) 서비스 발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반영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심 생활을 지원하는 안부 확인 등 서비스 확충을 추진

-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 지역 내 의사가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증소아환자 대상 상담관리, 방문진료 및 간호서비스 제공,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 추진,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등 퇴원·퇴소자에 사례관리 강화 및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강화
- 고혈압·당뇨 등 합병증 예방을 통한 불필요한 입원 방지 등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추진 지역 내 의사가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추진, 방문 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 확충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입원 환자 대상 퇴원계획 수립, 퇴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훈련 등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 사업 추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탈시설 장애인 주거공간 제공, 공공 실버주택 등 확대를 통한 주거 및 서비스 연계 제공, 지역 내 유희공간 등을 활용한 노인 공동거주 모델 개발 등

□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 불필요한 입원에 대한 관리 강화, 중증환자 수가 인상 및 감염 예방, 환자 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 등은 현실에 맞게 개선 및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등 의료관리체계 개선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수가와 연계하고 평가 지표에 입원 적정성 지표를 신설하는 등 적정 이용 유도를 위한 평가 체계 개선

□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와 책임성 제고

- 사회복지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 자원의 기능 및 연계 강화 추진, 지자체와 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 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정보 공유 활성화
- 지역사회 돌봄 필요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 12천명, 방문간호사 3.5천명을 확충하여 읍면동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서비스 안내·연계 기능 수행

3) 사회보장 욕구 파악을 위한 지역조사

(1) 지역주민욕구조사

① 조사의 배경 및 특징

- 본 마포구 지역주민욕구조사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본 조사는 지역 내 사회보장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욕구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증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정책의 실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사회보장 여건과 향후 필요성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기존의 정책과제와 현재 시행 중인 세부사업들을 개선·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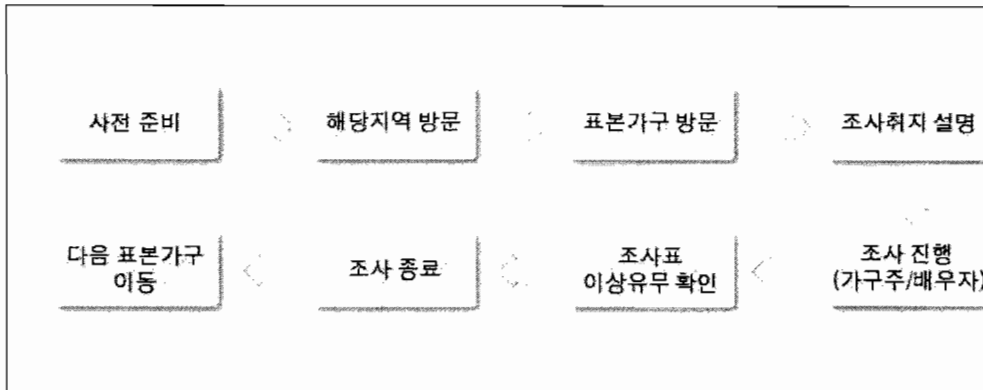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조사표와 조사 지침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음.
- 조사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분석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시·도 및 전국 단위 통계산출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구축된 공통된 조사표와 상세 조사지침을 활용하여 진행.
- 가구 일반현황 외에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 욕구수준,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조사항목들로 구성.
- 또한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 가구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항목들을 추가하여 맞춤형 복지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본 조사에서는 공통된 조사표에 의한 기본적인 항목 외에 현재 마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서비스 이용현황과 향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욕구수준을 추가적으로 조사함.
- 마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이용 여부와 각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함.
- 향후 4기 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영역을 조사함으로써 사회보장 필요 영역에 대한 니즈와 기대수준을 파악함.

② 조사 내용 및 방법

- 본 조사의 설문지는 전국 공통조사표에 따른 가구 일반현황, 사회보장 관련 욕구(아동 돌봄, 성인 돌봄,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보호·안전, 건강(신체적), 건강(정신적),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아동·노인가구 대상 항목 등을 포괄하고 있음.
- 이외에도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과의 논의를 거쳐 자체조사 항목으로 마포구 사회보장서비스 이용경험 및 욕구 등도 포함되었음.
- 자세한 설문조사 내용은 부록의 설문지 참조.

[그림 5-1] 조사 진행과정



- 본 조사는 관련 지침(「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욕구조사 조사지침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거 표본가구 방문면접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진행 과정은 [그림 5-1]과 같음.
- 조사 표본설계는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준으로, 마포구의 동별 주택유형을 고려한 비례할당이 적용됨. 행정동과 주택유형별 할당표는 다음의 [그림 5-2]와 같음.

[그림 5-2] 마포구 지역주민 욕구조사 표본설계

구분	계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포함)	단독주택
계	400	223	125	52
공덕동	35	19	10	6
대흥동	13	6	1	6
도화동	24	21	1	2
망원1동	23	4	15	4
망원2동	22	9	11	2
상암동	33	30	2	1
서강동	30	19	8	3
서교동	26	5	16	5
성신1동	21	2	16	3
성신2동	43	34	7	2
신수동	20	12	5	3
아현동	35	29	4	2
연남동	18	3	10	5
염리동	13	6	3	4
용강동	24	21	2	1
합정동	20	3	14	3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마포구 지역주민 욕구조사 진행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조사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조사방법 : 가구방문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유효표본 : 총 400가구(아동가구 108가구, 노인가구 162가구 포함)
- 조사대상 :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 표본오차 : 95% 신뢰구간에서 $\pm 4.9\%$ point
- 조사시기 : 2018년 6월~7월
- 실사기관 : (주)현대리서치

③ 지역주민 욕구조사 응답가구의 일반적 특성

㉑ 응답가구의 일반적 특성

- 본 마포구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400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음. 본 조사에 응답한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5-1>과 같음.
- 행정동별 응답가구의 수는 당초의 표본설계와 같음. 성산2동이 43가구(10.8%)로 가장 많았고, 염리동은 13가구(3.3%)로 가장 적었음.
- 주택유형의 경우 아파트가 181가구로 전체 응답가구의 45.3%를 차지하였으며, 다세대(118가구, 29.5%)와 단독주택(56가구 14.0%)의 순서였음.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 응답가구는 전체의 10.5%였음.
- 가구원 수는 1인 82가구, 2인 120가구로 1~2인 가구가 전체 응답가구의 과반을 차지한 반면, 전통적인 핵가족 유형에 해당하는 3~4인 가구의 비율은 44.8%에 불과하였음. 본 욕구조사에 응답한 400가구의 가구원수는 총 1,035명으로, 평균 가구원수는 2.59명으로 나타남.
- 주택점유형태는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가 55.3%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전세와 월세 가구는 각각 28.3%와 15.5%였음.
- 마포구 거주기간은 88.5%가 4년 이상으로, 대부분의 응답가구가 마포구에 장기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 응답 가구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행정동	공덕동	(35)	8.8	가구 형태	양 부모 가정	(182)	45.5
	대흥동	(13)	3.3		단독(1인)	(82)	20.5
	도화동	(24)	6.0		모자 가정	(29)	7.3
	망원1동	(23)	5.8		부자 가정	(3)	0.8
	망원2동	(22)	5.5		조손/소년소녀 가장	(2)	0.5
	상암동	(33)	8.3	부부 가정	(92)	23.0	
	서강동	(30)	7.5	기타	(10)	2.5	
	서교동	(26)	6.5	아동	아동 있음	(108)	27.0
	성산1동	(21)	5.3		아동 없음	(292)	73.0
	성산2동	(43)	10.8	노인	노인 있음	(162)	40.5
	신수동	(20)	5.0		노인 없음	(238)	59.5
	아현동	(35)	8.8	장애인	장애인 있음	(42)	10.5
	연남동	(18)	4.5		장애인 없음	(358)	89.5
	염리동	(13)	3.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78)	19.5
	용강동	(24)	6.0		맞벌이 아님	(199)	49.8
합정동	(20)	5.0	비해당		(123)	30.8	
주택 유형	일반단독	(56)	14.0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2)	0.5
	다세대 주택	(118)	29.5		다문화 아님	(282)	70.5
	연립주택	(3)	0.8		비해당	(116)	29.0
	일반 아파트	(181)	45.3	급여1	생계·의료급여	(18)	4.5
	공공임대 아파트	(42)	10.5		비해당	(382)	95.5
가구원 수	1인 가구	(82)	20.5	급여2	주거·교육급여	(12)	3.0
	2인 가구	(120)	30.0		비해당	(388)	97.0
	3~4인 가구	(179)	44.8	마포구 거주 기간	1년 이내	(8)	2.0
	5인 이상 가구	(19)	4.8		1~2년 이내	(18)	4.5
	가구원수 평균	2.59명	-		2~3년 이내	(9)	2.3
			3~4년 이내		(11)	2.8	
점유 형태	자가	(221)	55.3	4년 이상	(354)	88.5	
	전세	(113)	28.3	거주기간 평균	21.5년	-	
	월세(사글세 포함)	(62)	15.5	전체	(400)	100.0	
	무상	(4)	1.0				

- 응답가구의 가구 특성 가운데 가구의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구가 전체의 45.5%로 가장 많았으며, 모부자 가정과 조손가정 등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례는 34가구, 8.5%로 나타남.
- 본 조사에 응답한 400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108가구로 전체의 27.0% 수준이었고,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는 162가구로 전체의 40.5%에 달하였음.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42가구로 전체 가구의 10.5% 수준이었음.
- 맞벌이 가구는 78가구로 전체 응답가구의 19.5%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족은 2가구에 불과하였음.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8가구로 전체의 4.5%를, 주거 및 교육급여 수혜가구는 12가구에 3.0%로 나타남

㉔ 응답가구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 <표 5-2>는 본 조사에 응답한 400가구의 가구원 1,035명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성별 가구원 분포를 보면 남성이 495명으로 47.8%, 여성이 540명 52.2%로 여성가구원 수가 더 많았음.
-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400명으로 전체 가구원의 38.6%를 차지하였고, 가구주의 배우자가 272명으로 26.3%를, 가구주의 미혼자녀가 307명으로 2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3세대 이상의 가구에 나타나는 가구원 유형인 기혼자녀, 손자녀, 부모 등은 많지 않았음.
- 가구원의 교육수준을 보면, 2년제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40%에 달하여 조사에 응답한 성인 가구원들의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자의 경우 미성년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임.
- 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전체 가구원의 29.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가정주부가 21.1%였음. 자영업자는 96명으로 전체 가구원의 9.3%에 불과하지만, 전체 응답가구가 40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사료됨. 반면, 임시일용직이나 무급종사 등 취업지위가 낮은 가구원은 비율은 높지 않았음.

<표 5-2> 응답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성	(495)	47.8	교육 수준	미취학	(56)	5.4	
	여성	(540)	52.2		무학	(27)	2.6	
가구 주 관계	가구주	(400)	38.6		초등학교	(189)	18.3	
	배우자	(272)	26.3		중학교	(103)	10.0	
	미혼자녀	(307)	29.7		고등학교	(246)	23.8	
	기혼자녀	(5)	0.5		대학	(89)	8.6	
	손자녀	(7)	0.7		대학교~	(325)	31.4	
	부모	(30)	2.9		경제 활동 상태	상용근로	(305)	29.5
	형제자매	(10)	1.0			임시일용	(47)	4.5
	기타	(4)	0.4			자영업	(96)	9.3
연령 분포	10세미만	(87)	8.4			무급종사	(8)	0.8
	10~19세	(96)	9.3			일시휴직	(4)	0.4
	20~29세	(93)	9.0			구직활동	(8)	0.8
	30~39세	(143)	13.8			주부	(218)	21.1
	40~49세	(160)	15.5	학업		(77)	7.4	
	50~59세	(150)	14.5	무직		(132)	12.8	
	60~69세	(132)	12.8	해당없음		(140)	13.5	
	70세이상	(174)	16.8	전체	(1035)	100.0		

④ 욕구조사 기초분석결과

□ 본 절에서는 지역사회 욕구조사에 참여한 400가구의 응답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사회보장 관련 욕구,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아동 및 노인 가구 관련 추가 문항, 마포구 욕구조사에서 추가된 사회보장서비스 이용경험으로 나누어 기초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요약함.

㉠ 사회보장 관련 욕구

i 사회적 위험에 대한 어려움 정도

<표 5-3> 사회적 위험에 대한 어려움

구분(%)	어려움의 정도						평균 (6점기준)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③	④	⑤	⑥ 매우 어렵다		
아동 돌봄	아동돌봄 어려움	50.0	14.8	7.4	11.1	7.4	9.3	2.39
	아동발달, 양육 어려움	73.1	12.0	5.6	3.7	3.7	1.9	1.58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어려움	0.0	0.0	0.0	0.0	50.0	50.0	5.50
성인 돌봄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58.2	11.3	10.2	6.2	7.9	6.2	2.13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64.8	17.9	3.7	4.3	4.9	4.3	1.80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39.5	14.0	14.0	7.0	11.6	14.0	2.79
	돌봄 담당가족당사자 어려움	75.1	7.3	4.5	3.4	5.1	4.5	1.69
기초 생활 유지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59.5	17.5	9.3	3.8	4.5	5.5	1.93
	가족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77.0	14.0	7.3	1.0	0.8	0.0	1.35
	친인척이웃 소속집단관계어려움	77.3	11.8	8.0	1.5	1.3	0.3	1.39
보호 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83.5	14.0	2.0	0.5	0.0	0.0	1.20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어려움	79.5	14.3	3.8	1.8	0.5	0.3	1.30
건강 (신체)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56.0	13.8	6.3	6.8	9.5	7.8	2.23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61.3	14.3	6.5	5.3	7.0	5.8	2.00
건강 (정신)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78.8	13.3	2.8	2.3	2.0	1.0	1.39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82.0	11.3	3.3	1.5	1.0	1.0	1.31
	약물 복용의 어려움	89.0	8.0	0.3	1.5	1.3	0.0	1.18
교육	학교생활의 어려움	61.7	21.0	12.3	2.5	2.5	0.0	1.63
	학업유지의 어려움	55.6	18.5	13.6	6.2	4.9	1.2	1.90
	평생교육 기초적 학습 어려움	73.0	12.8	5.8	2.8	3.8	2.0	1.58
고용	취업·창업활동, 기회미련 어려움	59.0	13.3	4.8	6.8	12.8	3.5	2.12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64.5	11.8	5.8	6.8	7.3	4.0	1.93
주거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54.3	15.5	7.5	5.3	12.0	5.5	2.22

구분(%)		어려움의 정도						평균 (6점기준)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③	④	⑤	⑥ 매우 어렵다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	61.8	20.0	6.0	3.0	5.3	4.0	1.82
문화 여가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59.5	14.0	6.5	6.8	10.3	3.0	2.03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61.5	13.8	5.3	6.8	9.8	3.0	1.99
환경	환경오염 관련 어려움	47.3	18.0	10.3	10.0	10.3	4.3	2.31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	56.0	19.5	7.8	6.0	6.5	4.3	2.00

□ 지역사회 욕구조사의 설문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응답항목의 하나가 각 영역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어려움을 묻는 문항임. <표 5-3>은 아동 돌봄부터 환경에 이르는 세부 영역별 어려움에 대한 응답자의 빈도분포와 평균 점수를 요약해주고 있음.

- 우선, 아동 돌봄, 성인 돌봄, 교육영역은 해당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만 응답하게 되어 있음. 아동 돌봄 영역 중에서는 장애아동과 관련된 어려움(5.50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는 2가구에 불과하여 유의한 분석이 어려움. 성인 돌봄의 경우에는 장애인 돌봄 과정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평균 점수는 2.79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가 응답하는 나머지 영역에 비해서는 아동 및 성인 돌봄의 어려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전체 가구가 응답하는 나머지 영역에서도 전반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는 영역은 발견되지 않았음. 그나마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영역으로는 신체적 건강, 고용, 주거, 환경 등이었음. 세부 항목별로는 환경오염(2.31점), 신체적 건강문제(2.23점), 주거비 부담(2.22점), 취업·창업활동(2.12점) 등의 어려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됨.

ii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5-4> 참조),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 아동돌봄, 성인 돌봄, 고용, 주거, 환경 영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했음.

- 항목별로는 장애아동 돌봄(100.0%), 아동 돌봄(31.5%), 장애인 돌봄 과정(23.3%), 환경오염(21.8%), 주거비 부담(19.5%), 취업·창업활동(19.3%) 등에 대한 지원요구가 두드러짐.
- 외부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꼽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와 더불어 보호안전, 정신건강, 평생교육, 고용, 환경 영역의 항목들에서는 종합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을 언급한 경우가 더 많았음.
- 앞서 각 사회적 위험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큰 경우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요

구도 높은 편임. 각 영역이나 세부항목별로 비용지원이나 정보/상담서비스 등 서비스 욕구가 상이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표 5-4> 영역별 외부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

구분(%)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필요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 (1순위, Base=필요응답자)					
	필요	불필요	종합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찾아오는 서비스	시설 / 기관 이용	기타	
아동 돌봄	아동돌봄 어려움	31.5	68.5	23.5	38.2	17.6	20.6	0.0
	아동발달, 양육 어려움	11.1	88.9	25.0	41.7	25.0	8.3	0.0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어려움	100.0	0.0	0.0	50.0	0.0	50.0	0.0
성인 돌봄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16.9	83.1	33.3	43.3	13.3	10.0	0.0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11.7	88.3	26.3	47.4	21.1	5.3	0.0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23.3	76.7	20.0	50.0	10.0	10.0	10.0
기초 생활 유지	돌봄 담당가족당사자 어려움	9.0	91.0	25.0	43.8	25.0	6.3	0.0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16.3	83.8	21.5	75.4	0.0	1.5	1.5
	가족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1.8	98.3	28.6	57.1	0.0	0.0	14.3
보호 안전	친인척 이웃 소속집단관계 어려움	1.8	98.3	42.9	42.9	0.0	0.0	14.3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0.5	99.5	100.0	0.0	0.0	0.0	0.0
건강 (신체)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어려움	1.5	98.5	50.0	16.7	16.7	0.0	16.7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17.3	82.8	31.9	53.6	5.8	5.8	2.9
건강 (정신)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12.3	87.8	16.3	63.3	16.3	4.1	0.0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3.3	96.8	53.8	30.8	0.0	15.4	0.0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1.3	98.8	40.0	40.0	0.0	20.0	0.0
교육	약물 복용의 어려움	0.8	99.3	33.3	66.7	0.0	0.0	0.0
	학교생활의 어려움	8.6	91.4	28.6	42.9	0.0	14.3	14.3
	학업유지의 어려움	14.8	85.2	25.0	66.7	0.0	8.3	0.0
고용	평생교육 기초적 학습 어려움	4.5	95.5	55.6	11.1	0.0	5.6	27.8
	취업 창업활동, 기회미련 어려움	19.3	80.8	48.1	28.6	2.6	6.5	14.3
주거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12.8	87.3	49.0	37.3	5.9	3.9	3.9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19.5	80.5	16.7	78.2	1.3	1.3	2.6
문화 여가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	10.3	89.8	19.5	61.0	0.0	2.4	17.1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13.5	86.5	27.8	24.1	3.7	33.3	11.1
환경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10.5	89.5	21.4	21.4	4.8	42.9	9.5
	환경오염 관련 어려움	21.8	78.3	39.1	19.5	5.7	6.9	28.7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	16.3	83.8	41.5	23.1	4.6	4.6	26.2

iii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표 5-5>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구분(%)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경험					
		이용의향 없었음	서비스를 알지 못함	알고 있지만 신청 못함	신청했으나 이용 못함	과거이용, 현재 이용못함	현재 서비스 이용 중
아동 돌봄	아동돌봄 어려움	63.0	9.3	7.4	1.9	5.6	13.0
	아동발달, 양육 어려움	85.2	1.9	4.6	1.9	2.8	3.7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어려움	0.0	0.0	0.0	0.0	50.0	50.0
성인 돌봄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84.2	4.0	7.3	1.1	0.0	3.4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91.4	1.2	4.9	1.2	0.6	0.6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79.1	2.3	4.7	2.3	0.0	11.6
	돌봄 담당가족당사자 어려움	92.7	4.5	1.7	0.6	0.0	0.6
기초 생활 유지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82.3	5.5	7.3	1.3	0.0	3.8
	가족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97.5	2.0	0.0	0.0	0.0	0.5
	찬인척 이웃소속집단관계 어려움	97.8	2.0	0.0	0.0	0.0	0.3
보호 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99.5	0.5	0.0	0.0	0.0	0.0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어려움	98.5	1.3	0.3	0.0	0.0	0.0
건강 (신체)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83.5	8.5	4.3	1.3	0.0	2.5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89.0	5.8	2.3	1.0	0.0	2.0
건강 (정신)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96.8	2.0	0.8	0.0	0.3	0.3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98.3	1.0	0.0	0.0	0.5	0.3
	약물 복용의 어려움	99.3	0.5	0.0	0.0	0.0	0.3
교육	학교생활의 어려움	91.4	7.4	0.0	0.0	0.0	1.2
	학업유지의 어려움	86.4	6.2	3.7	1.2	0.0	2.5
	평생교육·기초적 학습 어려움	95.8	2.3	2.0	0.0	0.0	0.0
고용	취업·창업활동 기회마련 어려움	82.0	9.8	3.8	1.8	1.5	1.3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88.3	8.3	1.0	1.0	0.3	1.3
주거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82.5	7.0	6.3	1.0	0.0	3.3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	91.3	6.3	0.8	0.3	0.0	1.5
문화 여가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80.0	6.8	7.0	0.3	3.8	2.3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86.0	6.3	5.3	0.3	1.8	0.5
환경	환경오염 관련 어려움	82.0	16.8	1.3	0.0	0.0	0.0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	85.3	12.8	1.3	0.5	0.0	0.3

□ 사회적 위험의 어려움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신청·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표 5-5> 참조), 전체적으로 이용의향이 높지는 않았으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어려움 정도가 크게 나타난 아동 돌봄, 장애인 돌봄 과정, 문화여가활동, 취업·창업활동, 환경오염, 기초생활 해결, 주거비 부담, 신체적 건강문제, 일상생활 유지, 아동발달 및 양육 등은 이용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으로 확인됨.
-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이 매우 낮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홍보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주

민들이 상당수의 사회보장서비스 영역에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음.

- 특히 보호안전이나 정신건강의 경우 서비스 이용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가족관계 및 지역사회내의 관계적 측면에서도 그러하였음. 이러한 영역들은 개인적인 사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으며, 동시에 응답자와 그 가족은 이러한 영역들에서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음.
- 나아가 정신건강이나 인간관계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개입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해당 영역에 대한 서비스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정책개발자와 수요자인 일반 국민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암시함.

iv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신청·이용 불편사항

□ <표 5-6>은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신청·이용 중의 불편사항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요약해주고 있음.

-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서비스 관련 불편사항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을 지적한 경우가 많았음. 또한 적합한 서비스 부재와 낮은 서비스 질을 꼽은 경우도 많아 공공서비스 품질 수준에 대한 불만도 일부 확인됨.
- 각 영역 및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보부족은 노인돌봄과정, 정신적 건강관리, 친인척 등 소속집단 관계, 돌봄 담당가족 어려움 등에서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는 비율이 특히 높았고, 낮은 서비스 질 문제는 장애아동 돌봄, 장애인 돌봄, 가족외부로부터의 안전유지 등에서 불편사항으로 지적되는 비율이 높았음. 반면, 적합한 서비스 부재는 약물복용, 정신적 건강문제, 신체적 건강문제, 평생교육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그 밖에 이용자격 제한은 기초생활 해결, 아동발달·양육, 주거비 부담, 신체적 건강관리 등에서, 비용부담은 장애아동 돌봄, 주거환경 열악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됨. 거리·교통문제는 문화여가활동 항목과 관련하여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지적됨

<표 5-6>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신청·이용 불편사항

구분(%)		지원 및 서비스인지, 신청, 이용 시 불편사항 (1순위, Base=인지/신청/이용 경험자)						
		서비스 정보부족	낮은 서비스 질	적합한 서비스 부재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비용 부담	거리, 교통문제	기타
아동 돌봄	아동돌봄 어려움	27.5	12.5	22.5	27.5	7.5	2.5	0.0
	아동발달, 양육 어려움	25.0	18.8	12.5	37.5	0.0	6.3	0.0
	장애아동돌봄, 발달 양육 어려움	0.0	50.0	0.0	0.0	50.0	0.0	0.0
성인 돌봄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35.7	0.0	14.3	35.7	10.7	3.6	0.0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57.1	7.1	14.3	7.1	14.3	0.0	0.0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11.1	33.3	0.0	22.2	22.2	0.0	11.1
	돌봄 담당 가족 당사자 어려움	53.8	7.7	15.4	15.4	7.7	0.0	0.0
기초 생활 유지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	18.3	11.3	11.3	43.7	14.1	0.0	1.4
	가족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50.0	10.0	10.0	10.0	20.0	0.0	0.0
	찬인척 이웃 소속집단 관계 어려움	55.6	11.1	11.1	0.0	22.2	0.0	0.0
보호 안전	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	50.0	50.0	0.0	0.0	0.0	0.0	0.0
	가족외부로부터 안전유지 어려움	50.0	33.3	16.7	0.0	0.0	0.0	0.0
건강 (신체)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18.2	10.6	30.3	30.3	7.6	1.5	1.5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15.9	13.6	25.0	29.5	9.1	4.5	2.3
건강 (정신)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46.2	0.0	30.8	23.1	0.0	0.0	0.0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57.1	14.3	28.6	0.0	0.0	0.0	0.0
	약물 복용의 어려움	33.3	33.3	33.3	0.0	0.0	0.0	0.0
교육	학교생활의 어려움	42.9	14.3	14.3	0.0	14.3	0.0	14.3
	학업유지의 어려움	18.2	27.3	0.0	27.3	18.2	9.1	0.0
	평생교육·기초적 학습 어려움	11.8	5.9	29.4	0.0	23.5	23.5	5.9
고용	취업·창업활동, 기회미련 어려움	29.2	13.9	25.0	13.9	13.9	1.4	2.8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	34.0	12.8	27.7	8.5	14.9	0.0	2.1
주거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	24.3	8.6	18.6	37.1	11.4	0.0	0.0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	20.0	20.0	17.1	17.1	25.7	0.0	0.0
문화 여가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	25.0	3.8	22.5	12.5	7.5	26.3	2.5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	30.4	3.6	23.2	14.3	12.5	16.1	0.0
환경	환경오염 관련 어려움	47.2	6.9	26.4	11.1	4.2	1.4	2.8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	42.4	16.9	20.3	5.1	6.8	0.0	8.5

㉔ 생활여건 및 지역사회 인식

i 경제적 상황

- 마포구 지역사회 욕구조사에 참여한 응답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연간 가구소득, 경제적 상황 평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표 5-7>은 응답가구의 소득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평균 4,577만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평균 3,624만원,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 994만원, 공적이전소득 542만원, 사적이전소득 475만원, 비소비지출 평균 673만원 등으로, 경상소득은 평균 4,202만원,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3,532만원으로 조사됨.
 - <표 5-8>은 현재 응답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주고 있음.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 이상(52.3%)으로 나타난 가운데, 어렵다는 평가(35.0%)가 여윌롭다(12.8%)는 평가보다 많았음.
 - <표 5-9>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대한 응답 역시 중간으로 응답한 비율이 43.8%로 가장 높았고, 중간보다 약간 낮은 3번과 4번 응답자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음. 반면, '상'에 해당하는 9번 응답 비율은 전혀 없고, 7번과 8번 응답비율은 7% 수준에 불과하였음. 전반적으로 응답가구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지위로서 중간 및 중간 아래로 평가하였음.

<표 5-7> 연간 가구소득

구분	연간 금액(해당 소득·지출이 있는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비소비지출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금액(만원)	4,576.9	3,624.	994.2	542.16	475.00	673.38	4,201.	3,531.85
	4	49	1				86	

* 본 조사에 참여한 표본가구의 결과로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5-8> 경제적 상황 평가

구분	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					종합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	보통	여유로운 편	매우 여유롭다	어려움	보통	여유로움
비율(%)	7.0	28.0	52.3	12.5	0.3	35.0	52.3	12.8

<표 5-9>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구분	사회경제적 지위 정도								
	① 하	②	③	④	⑤ 중	⑥	⑦	⑧	⑨ 상
비율(%)	6.0	6.3	13.3	17.5	43.8	6.5	4.5	2.3	0.0

ii 주거환경 평가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태와 관련해서는 양호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방음상태 불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음(<표 5-10> 참조). 다른 모든 항목에서 양호하다는 응답이 85%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방음상태 불량을 호소하는 비율은 35.3%로 나타남. 이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의 문제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표 5-11>은 전반적인 주택상태의 만족도를 보여주는데, 만족이 89.3%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 <표 5-12>는 거주하는 지역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거주환경에 대한 응답결과임. 주요 편의 시설, 문화 및 교통여건 등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만족 의견이 높게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대기오염, 소음문제, 주차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매우 높았음. (<표 5-13> 참조)
- 주택상태와 거주환경 평가를 종합해 보면, 주택과 거주지역의 소음문제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세먼지와 주차공간 부족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됨.

<표 5-10> 주택상태 평가

구분(%)	주택상태 평가				종합	
	불량	조금 불량	조금 양호	양호	불량	양호
집의 구조물	1.5	9.5	43.5	45.5	11.0	89.0
방수 상태	4.0	11.3	41.0	43.8	15.3	84.8
난방 상태	1.0	4.0	43.0	52.0	5.0	95.0
환기 상태	4.3	9.5	41.0	45.3	13.8	86.3
채광 상태	4.8	10.3	44.0	41.0	15.0	85.0
방음 상태	6.5	28.8	40.8	24.0	35.3	64.8
재난, 재해 안전성	2.3	11.0	50.8	36.0	13.3	86.8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2.0	11.3	55.3	31.5	13.3	86.8
주택 방법상태	0.8	8.5	58.0	32.8	9.3	90.8

<표 5-11> 주택상태 전반적 만족도

구분(%)	주택 전반적 만족도				종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비율	0.8	10.0	65.5	23.8	10.8	89.3

<표 5-12> 거주환경 만족도

구분(%)	거주환경 만족도				종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시장·마트·백화점 접근용이성	1.8	12.0	58.0	28.3	13.8	86.3
병원·의료복지시설 접근용이성	0.3	7.0	59.8	33.0	7.3	92.8
시청 등 공공기관 접근용이성	0.3	6.8	58.8	34.3	7.0	93.0
문화시설, 놀이터·공원 등 접근용이성	3.0	13.5	51.3	32.3	16.5	83.5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0.8	4.8	56.8	37.8	5.5	94.5
주차시설 이용 편의성	6.5	16.5	46.0	31.0	23.0	77.0
주변도로의 보행 안전	2.8	14.5	61.8	21.0	17.3	82.8
미취학아동 시설·학교 등 교육환경	1.0	10.0	68.0	21.0	11.0	89.0
치안 및 범죄 등 방범상태	1.0	10.5	66.5	22.0	11.5	88.5
자동차 정적 등 집주변 소음정도	7.0	19.8	54.3	19.0	26.8	73.3
청소 및 쓰레기 처리상태	2.8	7.5	62.8	27.0	10.3	89.8
대기오염 정도	5.0	24.8	57.3	13.0	29.8	70.3
이웃과의 관계	0.5	3.5	75.8	20.3	4.0	96.0

<표 5-13> 거주환경 전반적 만족도

구분(%)	거주환경 전반적 만족도				종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만족
비율	0.5	7.0	79.3	13.3	7.5	92.5

iii 의료·건강 현황

□ 지난 1년 중 의료기관 이용 경험은 91.3%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병(의)원(62.2%)과 종합병원(20.3%) 등으로 조사됨.(<표 5-14> 참조)

-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만족 의견이 80.3%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음을 보여줌.(<표 5-15> 참조)
-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체육활동을 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5%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을 하는 비율이 14.8%로 가장 높았고, 매일 하는 경우는 13.5%로 나타남.(<표 5-16> 참조)

- 평소 정기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96.7%는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체력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민간시설 운영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됨.(<표 5-17> 참조)

<표 5-14> 의료기관 이용 현황

구분(%)	의료기관 이용여부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Base=의료기관 이용 경험자)					
	아니오	예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보건소	약국
비율	8.8	91.3	20.3	62.2	1.4	2.5	1.6	12.1

<표 5-15> 의료서비스 만족도

구분(%)	의료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Base=이용 경험자)					종합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24.7	55.6	18.9	0.8	0.0	80.3	18.9	0.8

<표 5-16> 규칙적인 체육활동 현황

구분(%)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빈도								
	전혀 하지않음	한달에 2~3번	일주일에 1번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4번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6번	매일
비율	37.5	3.8	5.0	13.5	14.8	6.3	4.8	1.0	13.5

<표 5-17> 정기적인 체력관리 서비스

구분(%)	정기적인 체력관리 서비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Base=체력관리 응답자)	
	아니오	예	민간시설 운영 프로그램	국가·지자체 프로그램
비율	96.8	3.3	84.6	15.4

iv 문화·여가 현황

- 마포구 지역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영화 관람이 가장 활발한 문화·여가 활동으로 나타나 가구원 1인당 연간 평균 3.66회를 관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5-18> 참조)

- 반면, 나머지 공연 및 스포츠 관람 빈도는 모두 연평균 1회 미만으로 나타나, 문화·여가활

동의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음

- 나아가 <표 5-19>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 및 창작 문화활동의 참여 빈도를 보여주고 있음. 문학·음악·예술 등의 발표회나 창작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모든 항목에서 3%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음.
- 각종 문화여가활동에 참여 경험은 매우 적었으나, 직접적인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 6점 이상(7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음. 지역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표 5-18> 문화여가활동 현황

구분(회)	공연 및 스포츠 가구원 평균 관람횟수						
	음악 연주회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횟수	0.44	0.47	0.04	3.66	0.75	0.45	0.28

<표 5-19> 문화여가활동 참여경험 및 만족도

구분(%)	예술행사 참여경험		예술행사 참여 만족도(Base=참여경험자)							평균 (7점 기준)
	없다	있다	①매우 불만족	②	③	④ 보통	⑤	⑥	⑦매우 만족	
문학행사 개최 및 창작활동	98.3	1.8	0.0	0.0	0.0	14.3	0.0	42.9	42.9	6.14
미술전시회 및 창작활동	98.0	2.0	0.0	0.0	0.0	0.0	25.0	37.5	37.5	6.13
서양음악 발표회 및 창작활동	97.3	2.8	0.0	0.0	0.0	9.1	0.0	27.3	63.6	6.45
전통예술 발표회 및 창작활동	99.3	0.8	0.0	0.0	0.0	0.0	33.3	33.3	33.3	6.00
연극 발표회 및 창작활동	98.3	1.8	0.0	0.0	0.0	14.3	0.0	42.9	42.9	6.14
뮤지컬 발표회 및 창작활동	99.0	1.0	0.0	0.0	0.0	0.0	0.0	50.0	50.0	6.50
무용 발표회 및 창작활동	99.3	0.8	0.0	0.0	0.0	0.0	0.0	0.0	100.0	7.00
영화 제작 및 발표회	100.0	0.0	-	-	-	-	-	-	-	-
대중음악, 연예	99.5	0.5	0.0	0.0	0.0	0.0	0.0	0.0	100.0	7.00

v 삶의 만족도 및 지역사회 인식

- 조사에 응한 마포구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65였으며, 빈도로 보면 주로 5점에서 8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음.<표 5-20>
- <표 5-21>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임. 주로 7점~9점 사이에 대다수의 응답빈도가 집중되어 있었고, 10

점 만점을 기준으로 7.30점의 평균을 보이고 있어서, 조사에 응답한 마포구 지역주민의 거주 지역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5-20>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구분(%)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평균 (10점기준)
	① 전혀 만족못함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만족함	
비율	0.0	2.0	3.8	3.0	15.8	15.3	27.0	22.0	10.0	1.3	6.65

<표 5-21> 타 지역 대비 거주지역 평가

구분(%)	타 지역 대비 거주지역 평가										평균 (10점기준)
	① 열악하다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좋다	
비율	0.0	0.3	2.3	2.5	11.3	10.5	23.5	24.8	19.5	5.5	7.30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신청 경로를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 5-22> 참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6.0%, 들어봤으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37.5%에 달하였음. 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에 불과함.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70% 이상이 장애와 관련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었음.

○ 한편, 지역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5.24점으로 조사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5.29점으로 나타났음.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도움과 환경 제공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평가는 보통 수준이었음.(<표 5-23> 및 <표 5-24> 참조)

<표 5-22> 장애 어려움에 대한 도움신청 경로 인지수준

구분(%)	장애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신청 경로 인지수준			
	전혀 모름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모름	대략적 내용정도만 알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비율	36.0	37.5	23.3	3.3

<표 5-23>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도움 제공여부 평가

구분(%)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개별적 도움 제공여부 평가										평균 (10점기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그렇다	
비율	1.3	5.0	12.0	10.0	31.5	15.3	14.8	8.0	2.0	0.3	5.24

<표 5-24> 장애인에 대한 환경 제공여부 평가

구분(%)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환경 제공여부 평가										평균 (10점기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그렇다	
비율	1.3	4.3	11.5	8.0	34.0	16.5	15.0	7.3	2.0	0.3	5.29

㉔ 아동·노인 가구 관련

i 아동가구 관련

- <표 5-25>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주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67.6%) 및 방과후학교(42.6%) 이용이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조사됨.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9.3%, 초등돌봄교실 이용자도 12.0%로 나타났으나,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자는 매우 적거나 없는 수준이었음.
- 돌봄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양육부담이 경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답변이 많았음.
- 서비스 유형 중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이 10점 만점에 8.08점으로 양육부담을 경감시켰다는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매우 높았음. 또한 미취학 아동의 양육지원 서비스인 보육 및 아이돌봄 서비스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역시 평균 7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적으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양육부담 경감에 대한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이었음.

<표 5-25> 아동서비스 이용경험 및 도움정도

구분(%)	이용유무		양육부담 경감정도(Base=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자)										평균 (10점 기준)
	없다	있다	① 전혀 안줄어 들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완전히 덜어냄	
보육시설	32.4	67.6	1.4	0.0	9.6	1.4	6.8	9.6	24.7	20.5	19.2	6.8	7.05
아이돌봄서비스	90.7	9.3	0.0	0.0	0.0	0.0	0.0	20.0	40.0	30.0	10.0	0.0	7.30
드림스타트센터	100.0	0.0	-	-	-	-	-	-	-	-	-	-	-
지역아동센터	98.1	1.9	0.0	0.0	0.0	50.0	0.0	0.0	50.0	0.0	0.0	0.0	5.50
초등돌봄교실	88.0	12.0	0.0	0.0	0.0	0.0	0.0	0.0	38.5	23.1	30.8	7.7	8.08
방과후학교	57.4	42.6	2.2	2.2	6.5	4.3	4.3	15.2	13.0	28.3	17.4	6.5	6.96
청산초등학교	100.0	0.0	-	-	-	-	-	-	-	-	-	-	-

<표 5-26> 아동서비스 이용 만족도

구분(%)	만족도(Base=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자)										평균 (10점 기준)
	① 매우 불만 족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만족	
보육시설	0.0	1.4	1.4	1.4	8.2	5.5	23.3	20.5	24.7	13.7	7.73
아이돌봄서비스	0.0	0.0	0.0	0.0	0.0	10.0	40.0	20.0	20.0	10.0	7.80
드림스타트센터	-	-	-	-	-	-	-	-	-	-	-
지역아동센터	0.0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7.50
초등돌봄교실	0.0	0.0	0.0	0.0	7.7	7.7	38.5	23.1	7.7	15.4	7.62
방과후학교	0.0	2.2	0.0	2.2	10.9	0.0	28.3	26.1	15.2	15.2	7.63
청산초등학교	-	-	-	-	-	-	-	-	-	-	-

□ <표 5-26>에 나타난 아동서비스 이용만족도 결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응답자가 있는 모든 항목의 서비스에서, 이용만족도가 평균 7.5점을 상회하였음.

○ 한편, 만 12세 이하 취약아동이 있는 경우 방과 후에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3가구 중 1가구(32.7%)에서 방치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방치된 시간은 평균 1.88시간으로 나타났음.<표 5-27> 참조

<표 5-27> 아동방치 현황

구분(%)	아동방치 여부		평균 방치시간(시간) (Base=아동방치 응답자)
	없다	있다	
비율	67.3	32.7	1.88

ii 노인가구 관련

□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움신청경로를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27.8%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도 40.1%에 달하였음. 반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하였음 (<표 5-28> 참조). 앞의 장애로 인한 도움신청경로 인지수준과 마찬가지로, 노인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표 5-29>는 지역사회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별적 도움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로서, 10점 만점에 평균 5.27점으로 보통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었음.
- 나아가 <표 5-30>은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교통편의나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로서, 10점 만점에 평균 5.33점으로 평가되었음. 마포구 지역사회 욕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왔다고 평가하지는 않고 있음.

<표 5-28>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도움신청경로 인지수준

구분(%)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도움신청경로 인지수준			
	전혀 모름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모름	대략적 내용 정도만 알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
비율	27.8	40.1	28.4	3.7

<표 5-29>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개별적 도움 제공여부 평가

구분(%)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개별적 도움 제공여부 평가										평균 (10점기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매우 그렇다	
비율	0.6	4.9	17.3	13.0	24.7	10.5	13.0	9.9	5.6	0.6	5.27

<표 5-30>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환경 제공여부 평가

구분(%)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환경 제공여부 평가										평균 (10점기준)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매우 그렇다	
비율	0.0	3.7	12.3	16.7	26.5	16.7	11.1	6.2	6.2	0.6	5.33

㉔ 사회보장서비스 이용경험 및 욕구

- 현재 마포구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이용률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신체적 건강 관련 서비스(37.3%), 문화여가 서비스(20.0%), 주거 관련 서비스(10.8%) 등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표 5-31> 참조
- 마포구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은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성인돌봄 서비스(4.37점), 주거 관련 서비스(4.19점), 신체적 건강 관련 서비스(4.16점), 아동돌봄 서비스(4.05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이었던 반면, 고용(3.63점), 환경(3.68점),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3.83점), 교육(3.91점) 영역의 만족도는 4점 미만이었음.
- 마지막으로 향후 마포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영역으로는 건강/의료(18.3%), 기초생활유지/사회관계(13.8%), 환경(12.8%), 주거(12.3%) 순으로 거론되었음.<표 5-32> 참조

<표 5-31> 사회보장서비스 이용여부 및 만족도

구분(%)	이용 여부		만족도(Base=이용 경험자)					평균 (5점 기준)
	이용 안함	이용	① 매우 불만족	②	③	④	⑤ 매우 만족	
아동돌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교실 등)	94.5	5.5	0.0	0.0	22.7	50.0	27.3	4.05
성인돌봄 (노인재가서비스, 노인복지관)	92.5	7.5	0.0	3.3	6.7	40.0	50.0	4.37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맞춤형 급여제도, 긴급생계지원)	95.5	4.5	5.6	22.2	5.6	16.7	50.0	3.83
보호안전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100.0	0.0	-	-	-	-	-	-
신체적 건강 (보건소 이용, 생활체육시설 이용)	62.8	37.3	2.7	4.7	8.1	43.0	41.6	4.16
정신적 건강 (정신건강 상담)	97.5	2.5	10.0	0.0	20.0	20.0	50.0	4.00
교육 (평생교육, 청소년 교육지원)	97.3	2.8	0.0	9.1	18.2	45.5	27.3	3.91
고용 (구인·구직, 창업지원)	96.0	4.0	12.5	12.5	6.3	37.5	31.3	3.63
주거 (주거급여, 임대주택, 주거비 용자)	89.3	10.8	2.3	4.7	4.7	48.8	39.5	4.19
문화여가 (문화여가시설 이용, 문화프로그램)	80.0	20.0	3.8	8.8	10.0	37.5	40.0	4.01
환경 (생활폐기물, 상하수도, 소음)			1.8	11.5	22.8	45.0	19.0	3.68

<표 5-32> 제4기 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중점 영역(1순위)

구분(%)	건강 / 의료	기초생활 유지/ 사회관계	환 경	주 거	아동 돌봄	보호 / 안전	교 육	성인 돌봄	고용	문화 / 여가	잘모름
비율	18.3	13.8	12.8	12.3	8.8	8.8	8.0	7.5	6.8	3.0	0.3

⑤ 지역주민욕구조사 심층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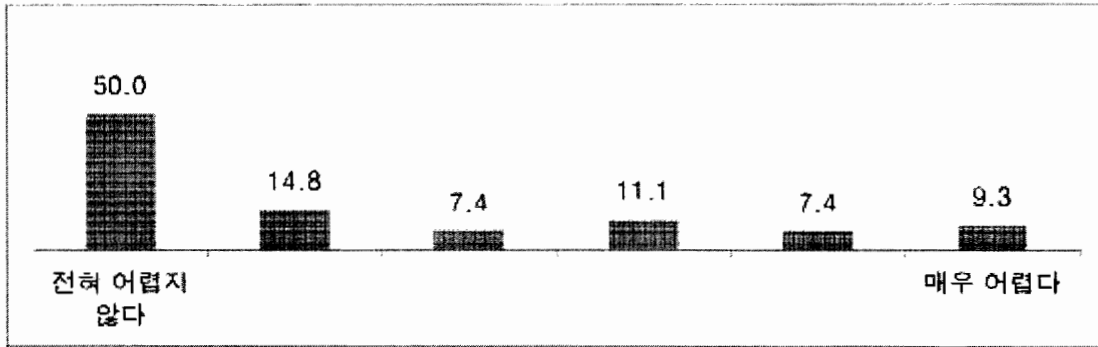
- 앞의 제3절이 지역사회 욕구조사에 대한 응답결과를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영역 간 비교를 통하여 어떠한 어려움이나 욕구가 어떠한 영역/항목에 특히 집중되어 있는가를 분석
- 본 절에서는 욕구조사 결과를 6개 영역(돌봄, 생활여건 및 안전, 건강, 고용 및 교육, 주거·문화·환경, 주민만족도 및 사회보장서비스 욕구)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의 세부 항목별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함
- 특히 항목별로 어려움의 정도, 외부지원의 필요성, 필요한 외부지원의 종류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가구의 특성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함

㉞ 돌봄 영역

i 아동 돌봄

- 아동 돌봄 영역은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응답대상으로 (N=108), 아동 돌봄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다수였음. ([그림 5-3] 참조)
- 아동 돌봄의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다 1점 ~ 매우 어렵다 6점으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점수는 2.4점으로 나타났음.
-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50.0%였던 반면,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9.3%에 불과하였음.

[그림 5-3] 어려움 정도 - 아동 돌봄(%)



- 아동 돌봄의 어려움 정도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표 5-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먼저 가구의 아동관련 욕구에 따른 차이로, 미취학아동이 있는 가구 (3.2점), 아동수가 2명 이상인 경우 (2.7점) 아동 돌봄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응답이 많았음.
- 가족의 형태적 측면에서 취약한 가구로 분류되는 한부모나 조손가족(3.4점) 역시 아동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단이었음.
- 무엇보다 아동 돌봄의 어려움 인식에 있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경제적 여건이었음. 전월세 거주 가구(2.7점)는 전체 평균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지만,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3.0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가구(3.9점)의 아동 돌봄 어려움 인식이 높았음. 특히, 실제 가처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응답가구의 하위 25% 미만에 속하는 가구의 어려움(4.5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하면, 아동이 많거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저소득 취약가구에서 아동 돌봄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고 있었음.

- 아동 돌봄의 어려움과 관련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31.5%,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8.5%로 나타났음.(<표 5-33> 참조)
- 외부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응답 역시 미취학 아동여부 및 가족형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 가처분 가구소득 하위 25% 미만의 저소득 가구의 75%, 사회경제적 지위로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66.7%, 한부모/조손가구의 60%,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의 50%,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의 50%가 아동 돌봄과 관련한 외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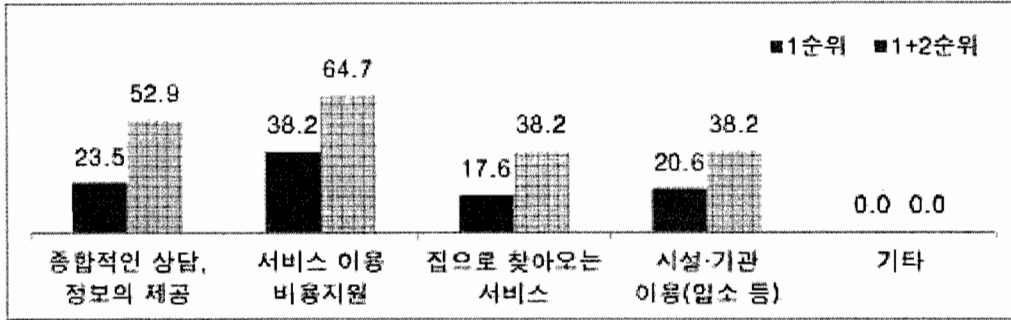
<표 5-33> 아동 돌봄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N=108)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64.8	18.5	16.7	2.4	31.5	23.5	38.2	17.6	20.6	0.0
거주형태	아파트	60.8	22.8	16.5	2.4	31.6	28.0	32.0	16.0	24.0	0.0
	단독/다세대 등	75.9	6.9	17.2	2.2	31.0	11.1	55.6	22.2	11.1	0.0
주택유형	자가	71.9	12.3	15.8	2.1	19.3	36.4	27.3	18.2	18.2	0.0
	전월세/기타	56.9	25.5	17.6	2.7	45.1	17.4	43.5	17.4	21.7	0.0
아동수	1명	71.4	20.4	8.2	2.0	26.5	30.8	30.8	15.4	23.1	0.0
	2명 이상	59.3	16.9	23.7	2.7	35.6	19.0	42.9	19.0	19.0	0.0
미취학 아동	있음	42.5	30.0	27.5	3.2	50.0	25.0	35.0	25.0	15.0	0.0
	없음	77.9	11.8	10.3	1.9	20.6	21.4	42.9	7.1	28.6	0.0
맞벌이	맞벌이	68.6	11.4	20.0	2.4	28.6	10.0	20.0	30.0	40.0	0.0
	기타	63.0	21.9	15.1	2.4	32.9	29.2	45.8	12.5	12.5	0.0
가족형태	양부모	66.0	18.4	15.5	2.3	30.1	25.8	35.5	19.4	19.4	0.0
	한부모/조손가정	40.0	20.0	40.0	3.4	60.0	0.0	66.7	0.0	33.3	0.0
경제상황	어려움	53.1	21.9	25.0	3.0	50.0	0.0	50.0	31.3	18.8	0.0
	보통	66.1	18.6	15.3	2.3	28.8	41.2	29.4	5.9	23.5	0.0
	여유로움	82.4	11.8	5.9	1.7	5.9	10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72.7	18.2	9.1	1.9	9.1	100.0	0.0	0.0	0.0	0.0
	중	70.7	18.3	11.0	2.2	28.0	30.4	34.8	17.4	17.4	0.0
	하	26.7	20.0	53.3	3.9	66.7	0.0	50.0	20.0	30.0	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0.0	50.0	50.0	4.5	75.0	0.0	66.7	0.0	33.3	0.0
	25%~75%	66.7	18.3	15.0	2.4	35.0	23.8	42.9	14.3	19.0	0.0
	75%초과	68.2	15.9	15.9	2.2	22.7	30.0	20.0	30.0	20.0	0.0

□ 외부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34), 필요한 지원/서비스로는 이용비용의 지원을 꼽은 경우가 3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적인 상담/정보의 제공(23.5%), 시설·기관 이용(20.6%), 찾아오는 서비스(17.6%) 등의 순으로 조사됨(1순위 응답 기준).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그림 5-4] 참조)

- 가구의 특성에 따른 외부지원 및 서비스의 선호도는 사례수(34가구)가 크지 않아 유의한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표 5-33> 참조)
- 즉 단독/다세대 거주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가구, 가처분 가구소득 하위 25% 미만인 저소득 가구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응답자들의 경우 이용료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 자가 거주 가구, 경제상황이 여유롭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상담 및 정보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4]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아동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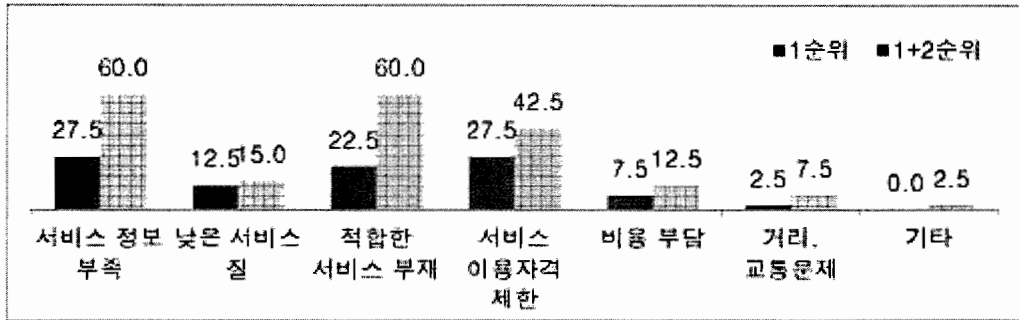


- 아동 돌봄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이용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이용의향이 없었다는 응답이 63.0%였으며,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9.3%, 서비스를 알고 있지만 신청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4%로 조사됨. 한편, 현재 서비스 이용 중이라는 응답은 13.0%로 각종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중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5-5] 참조)
- 한편, 아동 돌봄 관련 지원/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N=40) 불편했던 점으로는 서비스 정보 부족과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에 대한 언급이 각각 27.5%로 높았으며, 적합한 서비스 부재를 지적한 경우도 22.5%로 많았음.([그림 5-6] 참조)

[그림 5-5]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아동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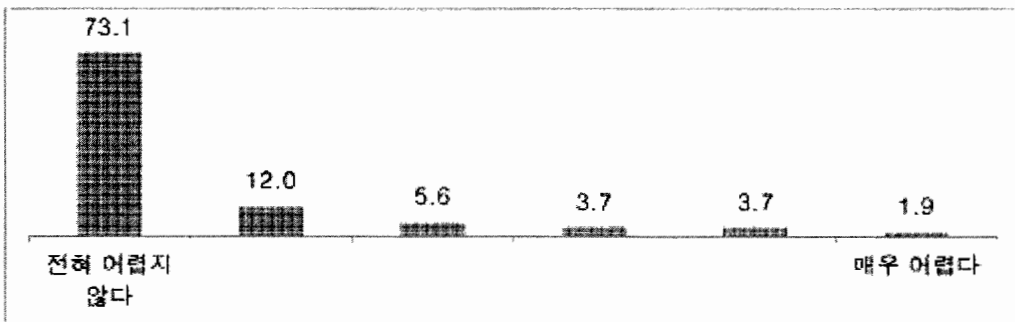


[그림 5-6]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아동 돌봄(%)



- 아동 발달 및 양육의 어려움은 양육정보의 부재나 발달부진의 어려움 등을 묻는 문항이었음.
-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년 간 아동 발달, 양육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73.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그림 5-7] 참조). 또한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값도 1.58점에 불과하였음.
- <표 5-34>는 응답가구의 특성에 따른 어려움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의 아동 돌봄 만큼의 차이는 아니지만, 아동수가 2명 이상이고, 미취학 아동이 있으며, 맞벌이, 한부모/조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이 아동 발달 및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그림 5-7] 어려움 정도 - 아동 발달, 양육(%)



- 아동 발달, 양육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10가구 중 9가구(88.9%)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11.1%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냄.(<표 5-34> 참조)
-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앞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한부모/조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의 경우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아동 발달, 양육 관련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12)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꼽은 경우가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적 상담/정보의 제공,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각각 25.0%로 조사됨(1순위 응답 기준).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지원에 대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그림 5-8] 참조)
-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표 5-34>에 제시되어 있으나 사례수(N=12)가 매우 작아 유의미한 분석 자체가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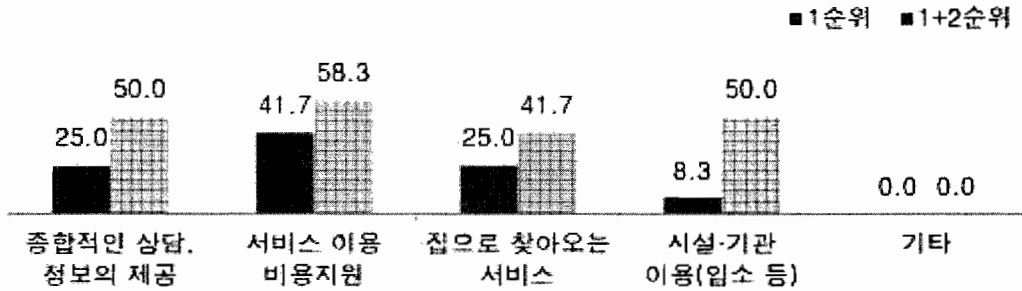
<표 5-34> 아동 발달·양육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N=108)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지원	제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85.2	9.3	5.6	1.6	11.1	25.0	41.7	25.0	8.3	0.0	
거주형태	아파트	83.5	12.7	3.8	1.6	10.1	25.0	37.5	25.0	12.5	0.0
	단독/다세대 등	89.7	0.0	10.3	1.7	13.8	25.0	50.0	25.0	0.0	0.0
주택유형	자가	87.7	8.8	3.5	1.4	7.0	25.0	25.0	50.0	0.0	0.0
	전월세/기타	82.4	9.8	7.8	1.7	15.7	25.0	50.0	12.5	12.5	0.0
아동수	1명	91.8	8.2	0.0	1.2	4.1	50.0	50.0	0.0	0.0	0.0
	2명 이상	79.7	10.2	10.2	1.9	16.9	20.0	40.0	30.0	10.0	0.0
미취학 아동	있음	75.0	15.0	10.0	2.0	17.5	14.3	57.1	28.6	0.0	0.0
	없음	91.2	5.9	2.9	1.4	7.4	40.0	20.0	20.0	20.0	0.0
맞벌이	맞벌이	77.1	14.3	8.6	1.9	17.1	16.7	16.7	50.0	16.7	0.0
	기타	89.0	6.8	4.1	1.5	8.2	33.3	0.0	0.0	0.0	0.0
가족형태	양부모	85.4	9.7	4.9	1.6	10.7	18.2	45.5	27.3	9.1	0.0
	한부모/조손가정	80.0	0.0	20.0	1.8	20.0	100.0	0.0	0.0	0.0	0.0
경제상황	어려움	81.3	6.3	12.5	1.9	15.6	20.0	40.0	40.0	0.0	0.0
	보통	86.4	10.2	3.4	1.5	11.9	28.6	42.9	14.3	14.3	0.0
	여유로움	88.2	11.8	0.0	1.4	0.0	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81.8	18.2	0.0	1.5	0.0	0.0	0.0	0.0	0.0	0.0
	중	87.8	9.8	2.4	1.5	9.8	37.5	25.0	25.0	12.5	0.0
	하	73.3	0.0	26.7	2.3	26.7	0.0	75.0	25.0	0.0	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75.0	0.0	25.0	2.3	25.0	100.0	0.0	0.0	0.0	0.0
	25%~75%	88.3	6.7	5.0	1.5	8.3	40.0	60.0	0.0	0.0	0.0
	75%초과	81.8	13.6	4.5	1.6	13.6	0.0	33.3	50.0	16.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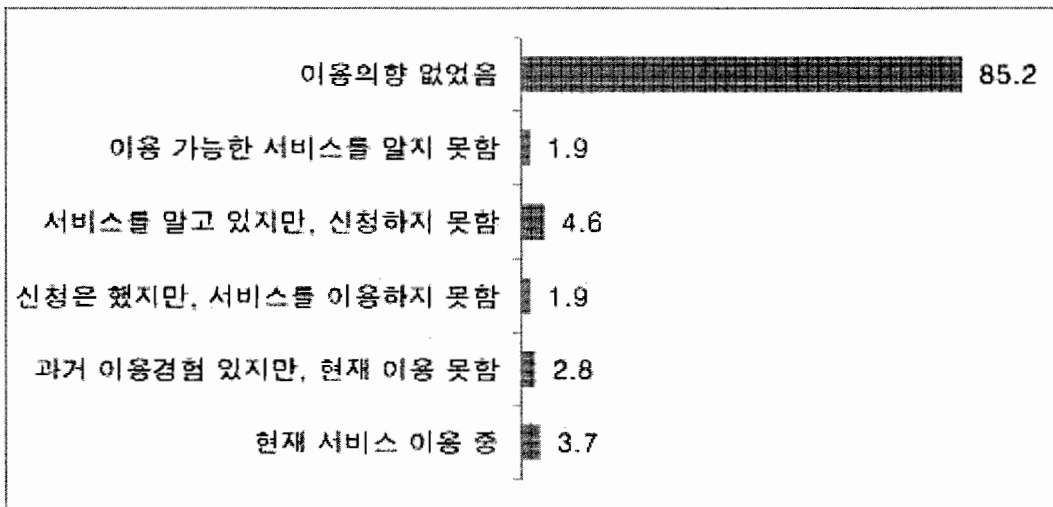
- 아동 발달, 양육 어려움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 있어서는 이용의향 없었다는 응답이 85.2%로 많았고, 현재 서비스 이용 증은 3.7%로 나타남.(<그림 5-9> 참조)
- 아동 발달, 양육 관련한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16) 불편사항으로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을 꼽은 경우가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 정보 부

족이 25.0%로 조사됨.(1순위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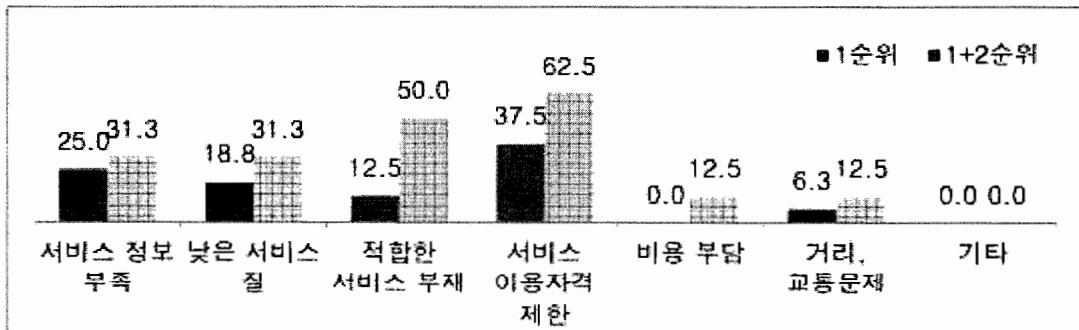
[그림 5 - 8]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아동 발달, 양육(%)



[그림 5 - 9] 사회복지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아동 발달, 양육(%)



[그림 5 - 10] 사회복지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아동 발달, 양육(%)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에 응답한 사례수는 2가구에 불과하여 의미 있는 분석이 어려움.(표와 그림은 생략)
- 그러나, 지난 1년간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는 2가구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평균 5.5점/6점)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관련 외부 지원/서비스 필요성에서도 2가구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장애아동 돌봄, 발달, 양육 관련한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에서는 1가구는 과거 이용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1가구는 현재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 신청, 이용 과정 중의 불편사항으로는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의견과 비용 부담을 꼽았으며(1순위), 1+2순위 기준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 거리/교통문제 등의 불편함도 지적됨.

<표 5-35> 아동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및 이용 만족도 (N=108)

	이용여부		양육부담 경감정도(10점)				서비스 이용 만족도(10점)			
	없음	있음	~5점	6~7	8~10	평균	~5점	6~7	8~10	평균
보육시설	32.4	67.6	19.2	34.2	46.6	7.1	12.3	28.8	58.9	7.7
아이돌봄서비스	90.7	9.3	0.0	60.0	40.0	7.3	0.0	50.0	50.0	7.8
드림스타트센터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역아동센터	98.1	1.9	50.0	50.0	0.0	5.5	0.0	50.0	50.0	7.5
초등돌봄교실	88.0	12.0	0.0	38.5	61.5	8.1	7.7	46.2	46.2	7.6
방과후학교	57.4	42.6	19.6	28.3	52.2	7.0	15.2	28.3	56.5	7.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표 5-35>는 아동 가구에 대한 추가문항으로 포함된 아동서비스 이용경험, 도움정도 및 이용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임.
- 아동이 있는 108가구 중에서 보육시설 및 방과후 학교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드림스타트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자는 전혀 없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 양육부담 경감정도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의 경감정도(평균 8.1점)가 가장 높았고,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방과후학교 역시 평균 7점 이상이었음.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양육부담 경감정도는 평균 5.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서비스 이용만족도의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평균 7.5점~7.8점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양호한 편이었음.

<표 5-36> 보육서비스1 이용유무, 도움정도 및 이용 만족도 (N=108)

		이용유무		양육부담 경감정도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없음	있음	8점 이상	평균 점수	t/F	8점 이상	평균 점수	t/F
응답자 전체		32.4	67.6	31.5	7.1	-	39.8	7.7	-
거주형태	아파트	34.2	65.8	30.4	7.2	0.42	36.7	7.7	0.00
	단독/다세대 등	27.6	72.4	34.5	6.8		48.3	7.7	
주택유형	자가	40.4	59.6	24.6	6.6	3.00	35.1	7.6	0.25
	전월세/기타	23.5	76.5	39.2	7.4		45.1	7.8	
아동수	1명	42.9	57.1	26.5	7.1	0.00	28.6	7.5	1.04
	2명 이상	23.7	76.3	35.6	7.0		49.2	7.9	
미취학 아동	있음	17.5	82.5	42.5	7.2	0.13	52.5	7.9	0.46
	없음	41.2	58.8	25.0	7.0		32.4	7.6	
맞벌이	맞벌이	28.6	71.4	28.6	6.8	0.59	48.6	8.0	0.69
	기타	34.2	65.8	32.9	7.2		35.6	7.6	
가족형태	양부모	31.1	68.9	33.0	7.2	11.78***	40.8	7.7	0.03
	한부모/조손가정	60.0	40.0	0.0	2.5		20.0	7.5	
경제상황	어려움	21.9	78.1	34.4	7.0	0.28	50.0	7.8	0.09
	보통	40.7	59.3	30.5	7.2		35.6	7.8	
	여유로움	23.5	76.5	29.4	6.8		35.3	7.5	
사회경제 지위	상	45.5	54.5	18.2	6.5	0.26	27.3	7.7	0.88
	중	32.9	67.1	31.7	7.1		39.0	7.6	
	하	20.0	80.0	40.0	7.0		53.3	8.3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25.0	75.0	0.0	3.3	5.93**	25.0	7.3	1.04
	25%~75%	35.0	65.0	19.0	7.2		35.0	7.5	
	75%초과	29.5	70.5	15.0	7.3		47.7	8.1	

* p<.05, ** p<.01, *** p<.001

주 1. 미취학아동 관련 서비스로,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한 응답자

2. 양육부담 경감정도 및 이용 만족도는 10점 척도로 구성. '8점 이상'은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자 비율임. '평균점수'는 10점 척도의 평균점수를 의미함.

<표 5-37> 취학아동 돌봄서비스1 이용유무, 도움정도 및 이용 만족도 (N=117)

		이용유무		양육부담 경감정도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없음	있음	8점 이상	평균 점수	t/F	8점 이상	평균 점수	t/F
응답자 전체		49.6	50.4	27.4	7.2	-	27.4	7.6	-
거주형태	아파트	54.2	45.8	21.7	7.0	1.07	21.7	7.5	0.89
	단독/다세대 등	38.2	61.8	41.2	7.6		41.2	7.9	
주택유형	자가	62.7	37.3	20.3	7.0	0.35	23.7	7.9	0.69
	전월세/기타	36.2	63.8	34.5	7.3		31.0	7.5	
아동수	1명	60.8	39.2	17.6	6.6	2.75	15.7	7.3	1.15
	2명 이상	40.9	59.1	34.8	7.5		36.4	7.8	
미취학 아동	있음	73.8	26.2	19.0	8.3	3.93	21.4	8.9	8.95**
	없음	36.0	64.0	32.0	7.0		30.7	7.3	
맞벌이	맞벌이	56.8	43.2	27.0	7.5	0.46	24.3	7.6	0.00
	기타	46.3	53.8	27.5	7.1		28.8	7.6	
가족형태	양부모	49.1	50.9	28.6	7.3	7.66**	27.7	7.7	1.97
	한부모/조손가정	60.0	40.0	0.0	3.5		20.0	6.0	
경제상황	어려움	44.7	55.3	26.3	7.2	0.60	21.1	7.4	0.40
	보통	51.7	48.3	28.3	7.4		33.3	7.8	
	여유로움	52.6	47.4	26.3	6.6		21.1	7.4	
사회경제 지위	상	50.0	50.0	16.7	5.3	3.03	25.0	7.2	0.25
	중	51.7	48.3	27.6	7.4		27.6	7.7	
	하	38.9	61.1	33.3	7.5		27.8	7.6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50.0	50.0	0.0	3.5	5.20**	25.0	6.0	0.97
	25%~75%	47.1	52.9	30.9	7.6		25.0	7.7	
	75%초과	53.3	46.7	24.4	6.8		31.1	7.7	

* p<.05, ** p<.01, *** p<.001

주 1.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 하나 이상 이용한 응답자

2. 양육부담 경감정도 및 이용 만족도는 10점 척도로 구성. '8점 이상'은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의 긍정적 응답자 비율임. '평균점수'는 10점 척도의 평균점수를 의미함.

□ <표 5-36>과 <표 5-37>은 아동서비스 가운데 이용자 비율이 높은 보육서비스와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이용유무, 양육부담 경감정도, 이용만족도를 가구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임.

- 먼저 <표 5-36>의 보육서비스의 이용유무 차이를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와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전월세 거주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보육서비스의 양육부담 경감정도에 대한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형태와 가처분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음. 한부모/조손가정과 가처분 가구소득 하위 25%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보육서비스를 통한 양육부담 경감정도가 유의미하게 더 낮았음.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공식적인 보육서비스만으로는 양육부담의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음을 시사함.

- 돌봄서비스의 이용만족도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가처분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만족도가 다소 낮은 특성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음. 보육서비스 이용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음.

□ <표 5-37>은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이용에 관한 세부 분석표로, 중복 이용한 가구는 별도의 사례로 간주하여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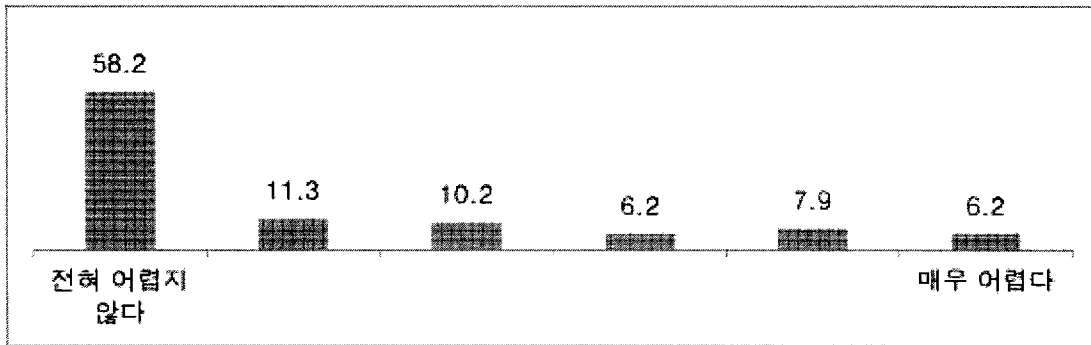
- 가구특성에 따른 이용유무의 차이를 보면, 단독/다세대 가구, 전월세 거주 가구, 2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구, 미취학 아동이 없는 가구,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취학아동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이 더 높았음. 그러나, 경제상황이나 가처분 가구소득에 따른 이용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음.
- 취학아동 돌봄서비스가 얼마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지, 가구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형태와 가처분 가구소득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음. 한부모/조손가족 및 가처분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양육부담 경감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앞의 보육서비스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의미함.
- 돌봄서비스 이용만족도 역시 보육서비스에 대한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다만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이용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음. 이것은 2명 이상의 아동이 있는 상황에서 취학아동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전반적인 양육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임.

ii 성인 돌봄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N=177)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성인 돌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전혀 어렵지 않다가 58.2%로 조사되었고, 매우 어렵다는 6.2%로 나타났음.([그림 5-11] 참조)

- 평균점수는 2.13점(6점 만점)으로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크지는 않았음
-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도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음 (<표 5-38> 참조). 다만,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어려움(2.9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림 5-11] 어려움 정도 일상생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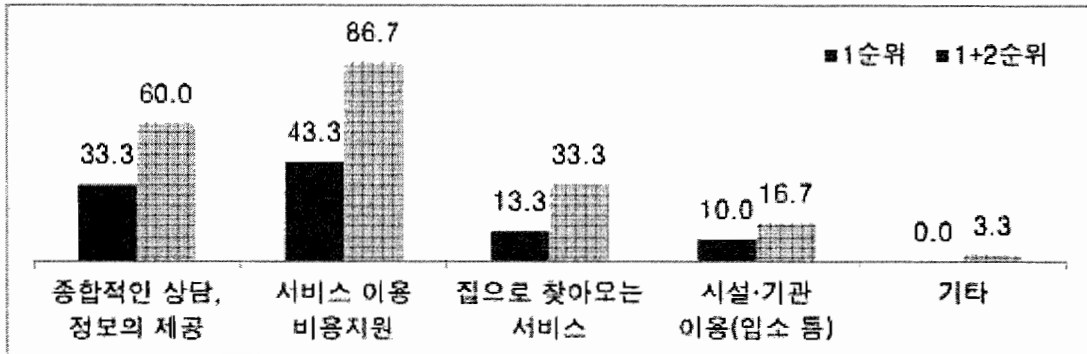
- 성인 돌봄의 어려움과 관련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16.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3.1%로 나타났음 (<표 5-38> 참조)
- 외부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응답은 가구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
- 1인 가구, 전월세 거주, 장애인 가구,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응답한 가구, 가처분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외부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표 5-38>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N=177)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 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 료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69.5	16.4	14.1	2.1	16.9	33.3	43.3	13.3	10.0	0.0
가구규모	1인 가구	73.6	18.9	7.5	1.9	20.8	27.3	63.6	9.1	0.0
	2인 가구	67.1	17.1	15.7	2.2	15.7	27.3	36.4	18.2	18.2
	3인 이상	68.5	13.0	18.5	2.2	14.8	50.0	25.0	12.5	12.5
거주형태	아파트	61.5	20.5	17.9	2.4	20.5	37.5	43.8	12.5	6.3
	단독/다세대 등	75.8	13.1	11.1	1.9	14.1	28.6	42.9	14.3	14.3
주택유형	자가	74.3	14.7	11.0	1.9	11.0	41.7	16.7	25.0	16.7
	전월세/기타	61.8	19.1	19.1	2.5	26.5	27.8	61.1	5.6	5.6
노인 가구원	있음	69.8	15.4	14.8	2.1	17.3	35.7	46.4	10.7	7.1
	없음	66.7	26.7	6.7	2.0	13.3	0.0	0.0	50.0	50.0
장애인	있음	50.0	25.0	25.0	2.9	32.5	38.5	38.5	15.4	7.7
	없음	75.2	13.9	10.9	2.0	12.4	29.4	47.1	11.8	11.8
아동	있음	80.0	0.0	20.0	1.9	10.0	100.0	0.0	0.0	0.0
	없음	68.9	17.4	13.8	2.1	17.4	31.0	44.8	13.8	10.3
맞벌이	맞벌이	68.8	31.3	0.0	1.8	18.8	0.0	66.7	0.0	33.3
	외벌이/기타	69.6	14.9	15.5	2.2	16.8	37.0	40.7	14.8	7.4
경제상황	어려움	65.1	17.4	17.4	2.3	22.1	42.1	47.4	5.3	5.3
	보통	70.8	18.1	11.1	2.0	13.9	20.0	40.0	30.0	10.0
	여유로움	84.2	5.3	10.5	1.8	5.3	0.0	0.0	0.0	100.0
사회경제 지위	상	88.9	0.0	11.1	1.9	0.0	0.0	0.0	0.0	0.0
	중	73.0	15.0	12.0	2.0	12.0	41.7	33.3	8.3	16.7
	하	61.8	20.6	17.6	2.4	26.5	27.8	50.0	16.7	5.6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72.7	15.9	11.4	2.0	20.5	38.9	50.0	5.6	5.6
	25%~75%	66.2	17.6	16.2	2.3	14.7	30.0	40.0	20.0	10.0
	75%초과	66.7	14.3	19.0	2.3	9.5	0.0	0.0	50.0	50.0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30)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언급한 경우가 43.3%로 가장 높았고, 종합적인 상담/정보 제공도 3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1순위 응답 기준).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빈도 분포 역시 큰 차이가 없음 ([그림 5-12] 참조)
- 가구의 특성에 따른 외부지원/서비스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은 사례수(30가구)가 너무 적어 유의미한 분석을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관련된 표내용만 제시함 (<표 5-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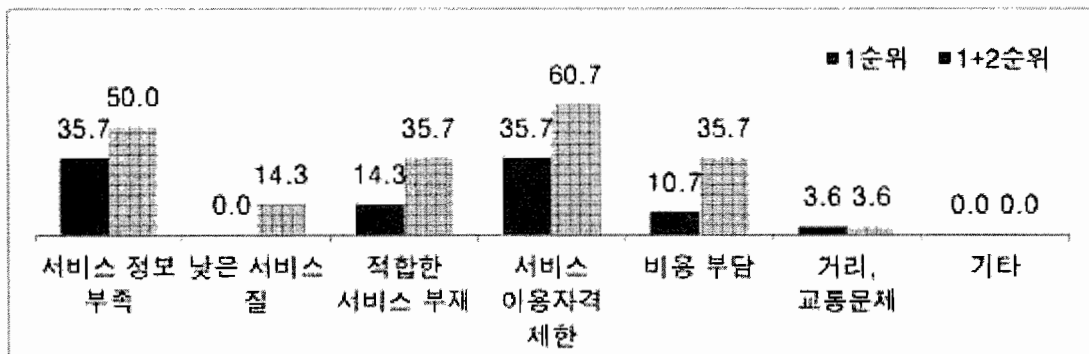
[그림 5-12]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일상생활 유지(%)



[그림 5-13]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일상생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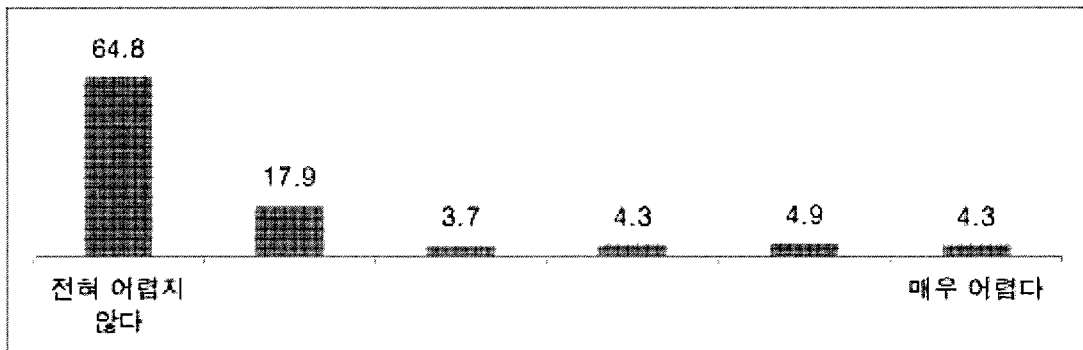


[그림 5-14]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일상생활 유지(%)



-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84.2%가 이용 의향 자체가 없었다고 응답하였음.([그림 5-13] 참조)
- 일상생활 유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28), 주된 불편사항으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과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각각 35.7%로 조사되었고, 적합한 서비스 부재(14.3%), 비용 부담(10.7%) 등의 응답이 그 뒤를 따랐음.([그림 5-14] 참조)
- 단,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모두 합산한 분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60.7%)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서비스 정보부족(50.0%)이 그 다음이었음.

[그림 5-15] 어려움 정도 - 노인 돌봄 과정(%)



-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이용절차 등에 관련된 조사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15]와 <표 5-39>와 같음.
- 노인이 있는 가구(N=162)를 대상으로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4.8%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4.3%로 조사됨.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1.80점으로 대체적으로 노인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절차에 어려움이 없었음을 의미함.
-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도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어려움(3.0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노인 돌봄의 문제가 단순히 고령으로 인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과 장애가 겹칠 때 더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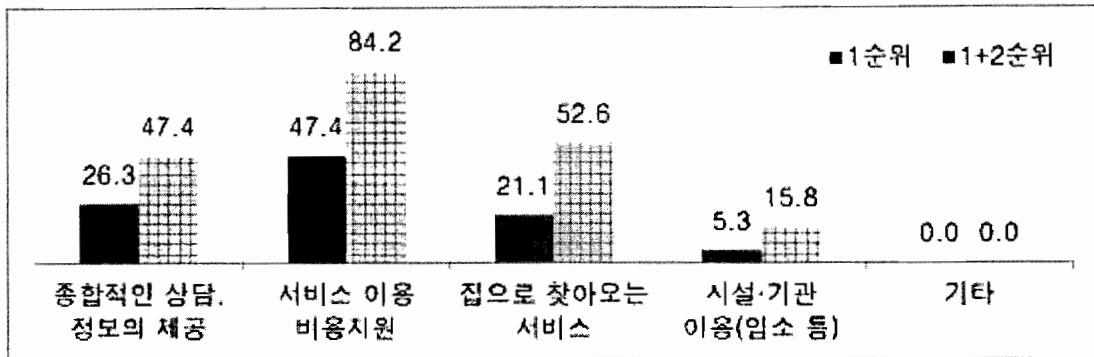
<표 5-39>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N=162)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 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 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82.7	8.0	9.3	1.8	11.7	26.3	47.4	21.1	5.3	0.0
가구규모	1인 가구	79.2	14.6	6.3	1.8	16.7	25.0	62.5	12.5	0.0
	2인 가구	84.8	4.5	10.6	1.8	12.1	25.0	50.0	12.5	0.0
	3인 이상	83.3	6.3	10.4	1.8	6.3	33.3	0.0	66.7	0.0
거주형태	아파트	79.4	10.3	10.3	2.0	13.2	44.4	33.3	22.2	0.0
	단독/다세대 등	85.1	6.4	8.5	1.7	10.6	10.0	60.0	20.0	0.0
주택유형	자가	85.1	5.9	8.9	1.7	8.9	33.3	22.2	44.4	0.0
	전월세/기타	78.7	11.5	9.8	2.0	16.4	20.0	70.0	0.0	10.0
노인 가구원	있음	82.7	8.0	9.3	1.8	11.7	26.3	47.4	21.1	5.3
	없음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장애인	있음	53.8	19.2	26.9	3.0	26.9	28.6	57.1	14.3	0.0
	없음	88.2	5.9	5.9	1.6	8.8	25.0	41.7	25.0	8.3
아동	있음	75.0	0.0	25.0	2.3	12.5	0.0	0.0	100.0	0.0
	없음	83.1	8.4	8.4	1.8	11.7	27.8	50.0	16.7	5.6
맞벌이	맞벌이	100.0	0.0	0.0	1.4	23.1	33.3	66.7	0.0	0.0
	외벌이/기타	81.2	8.7	10.1	1.8	10.7	25.0	43.8	25.0	6.3
경제상황	어려움	79.5	10.3	10.3	1.8	15.4	16.7	50.0	25.0	8.3
	보통	86.2	6.2	7.7	1.7	9.2	33.3	50.0	16.7	0.0
	여유로움	84.2	5.3	10.5	1.9	5.3	10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88.9	0.0	11.1	1.9	0.0	0.0	0.0	0.0	0.0
	중	84.9	5.4	9.7	1.7	9.7	33.3	44.4	22.2	0.0
	하	78.3	13.3	8.3	1.9	16.7	20.0	50.0	20.0	1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79.3	12.2	8.5	1.8	14.6	33.3	58.3	8.3	0.0
	25%~75%	87.1	4.8	8.1	1.7	9.7	16.7	33.3	33.3	16.7
	75%초과	83.3	0.0	16.7	2.1	5.6	0.0	0.0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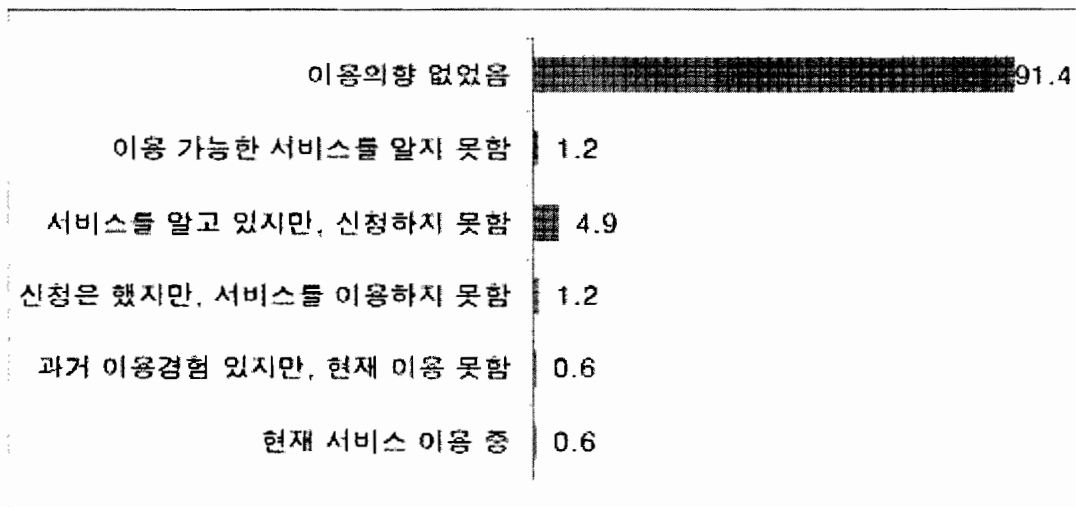
□ 노인 돌봄 과정에 대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11.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8.3%로 나타났다.(<표 5-39> 참조)

○ 가구특성에 따른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 전월세 거주, 장애인 가구,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외부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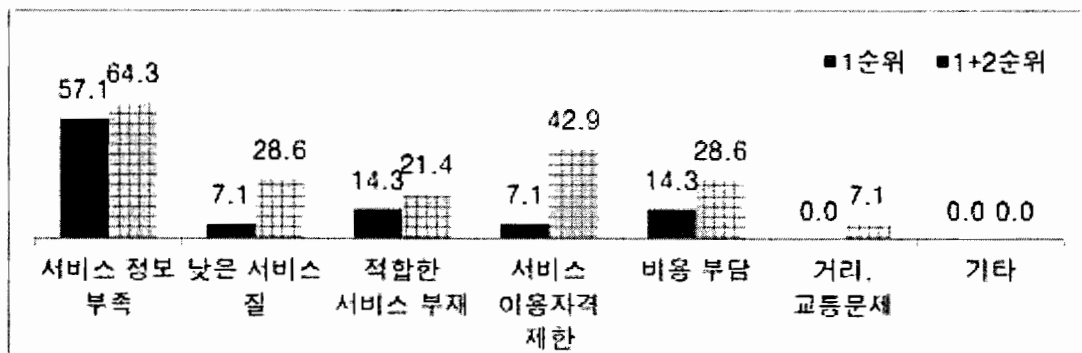
[그림 5-16]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노인 돌봄 과정(%)



[그림 5-17]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노인 돌봄 과정(%)



[그림 5-18]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노인 돌봄 과정(%)



□ 노인 돌봄과 관련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19) 구체적인 지원 및 서비스로는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을 지적한 경우가 1순위 기준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종합적인 상담/정보 제공(26.3%),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21.1%) 등으로 조사 됨.([그림 5-16] 참조)

- 가구특성별로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의 차이는 사례수가 매우 적어 유의미한 분석이 어려움.
- 한편, 노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의 인지, 신청, 이용 경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91.4%) 이용 의향이 없었음.([그림 5-17] 참조)
- 노인 돌봄 과정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N=14) 주된 불편사항으로는 서비스 정보 부족을 언급한 경우가 5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적합한 서비스 부재와 비용 부담(각각 14.3%) 등이 언급됨(1순위 기준).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이 정보부족과 함께 주요한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음.([그림 5-18] 참조)

□ <표 5-40>은 노인 가구에 대한 추가문항 내용으로,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이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고령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 우선 도움신청경로의 인지정도는 전혀 모름이 27.8%, 들었으나 잘 모름이 40.1%로 인지수준이 낮은 경우가 전체의 67.9%에 달하였고, 구체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7%에 불과하였음. 가구특성에 대한 차이를 보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서 인지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의 도움 수준에 대한 평가는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 점수는 5.3점으로 그리 높지 않았음. 가구특성에 따른 평균 차이는 가구규모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3인 이상 가구의 평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균 점수는 5.3점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 5-40>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 관련 도움신청, 도움제공, 환경제공 평가 (N=162)

	도움신청경로 ¹				충분한 도움 제공 ²		충분한 환경 제공 ³		
	전혀 모름	들었으나 잘 모름	대략적 알고있음	구체적 알고있음	평균 점수	t/F	평균 점수	t/F	
응답자 전체	27.8	40.1	28.4	3.7	5.3	--	5.3	--	
가구규모	1인 가구	22.9	50.0	25.0	2.1	5.4	3.41*	5.6	2.88
	2인 가구	27.3	34.8	33.3	4.5	5.6		5.5	
	3인 이상	33.3	37.5	25.0	4.2	4.7		4.8	
거주형태	아파트	26.5	41.2	26.5	5.9	5.1	0.53	5.1	1.61
	단독/다세대 등	28.7	39.4	29.8	2.1	5.4		5.5	
주택유형	자가	28.7	40.6	26.7	4.0	5.2	0.53	5.2	1.39
	전월세/기타	26.2	39.3	31.1	3.3	5.4		5.5	
	노인	있음	27.8	40.1	28.4	3.7		5.3	
가구원	없음	0.0	0.0	0.0	0.0	0.0	--		--
장애인	있음	11.5	42.3	42.3	3.8	5.1	0.18	5.3	0.00
	없음	30.9	39.7	25.7	3.7	5.3		5.3	
아동	있음	25.0	62.5	12.5	0.0	4.6	0.89	4.5	1.80
	없음	27.9	39.0	29.2	3.9	5.3		5.4	
맞벌이	맞벌이	23.1	46.2	30.8	0.0	6.0	1.98	5.8	0.86
	외벌이/기타	28.2	39.6	28.2	4.0	5.2		5.3	
경제상황	어려움	34.6	34.6	26.9	3.8	5.3	2.15	5.3	1.09
	보통	23.1	49.2	26.2	1.5	5.0		5.2	
	여유로움	15.8	31.6	42.1	10.5	6.1		5.8	
사회경제 지위	상	0.0	44.4	44.4	11.1	6.6	2.10	6.3	1.58
	중	28.0	41.9	28.0	2.2	5.2		5.2	
	하	31.7	36.7	26.7	5.0	5.2		5.3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18.3	43.9	34.1	3.7	5.4	0.54	5.5	0.69
	25%-75%	38.7	33.9	24.2	3.2	5.3		5.3	
	75%초과	33.3	44.4	16.7	5.6	4.8		4.9	

* p<.05, ** p<.01, *** p<.001

주 1. '본인 또는 가족이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시, 어떻게 어떠한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경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에 대한 각 응답범주 백분율.

2. '우리 지역은 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매우 그렇다' 10점으로 척도가 구성됨.

3. '우리 지역은 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교통편의나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하여 마찬가지 형태의 10점 척도로 구성됨.

□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은 장애 관련 서비스 이용, 지원체계 및 절차 등에 관련된 조사 문항으로, 분석결과는 [그림 5-19]와 <표 5-4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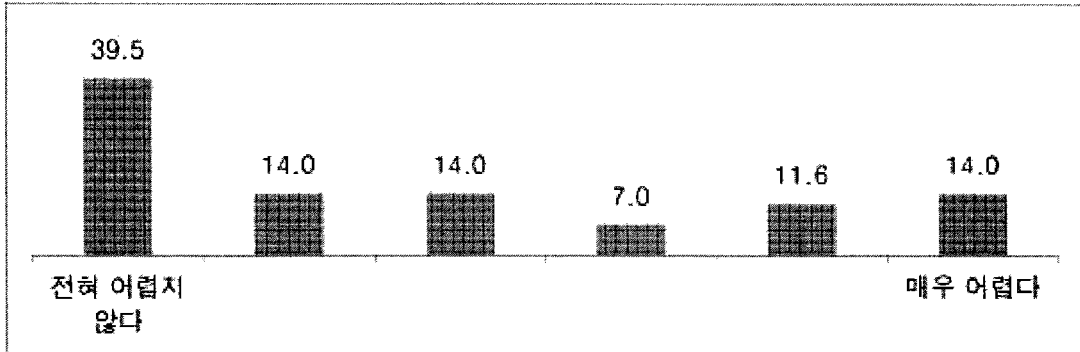
○ 가구 내 장애인(성인)이 있는 경우(N=43) 돌봄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39.5%만이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매우 어렵다는 응답은 14.0%로 조사됨

○ 6점 척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장애인 돌봄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의 어려움이 있었음.

- 가구특성에 따른 어려움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 사례수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특히 장애인 가구의 경우 경제상황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2가구에 불과하여 의미있는 해석이 어려움.

[그림 5-19] 어려움 정도 - 장애인 돌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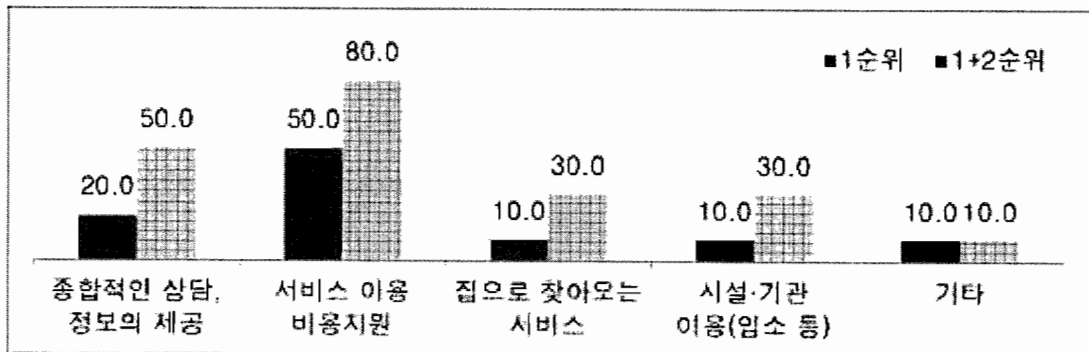


- 장애인 돌봄 과정과 관련한 외부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23.3%로 조사되었는데 (<표 5-41> 참조), 이는 앞서 아동 돌봄 지원 및 서비스 필요성(3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3인 이상 가구, 노인 가구,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외부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장애인 돌봄 과정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N=10) 구체적인 지원 및 서비스 내용으로는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비용지원이 5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적인 상담/정보 제공(20.0%), 찾아오는 서비스와 시설·기관 이용(각 10.0%) 등의 순이었음.([그림 5-20] 참조)
- 이에 대한 가구특성별 차이는 사례수가 극히 적어 유의미한 분석이 어렵지만, 분석결과는 <표 5-41>에 제시되어 있음.

<표 5-41> 장애인 돌봄 과정의 어려움 및 외부지원·서비스 인식 (N=43)

구분	어려움의 정도				외부 지원 필요	외부지원/서비스 필요성 (1순위)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6점 평균		상담·정보	이용료 지원	재가 서비스	시설/기관	기타
응답자 전체	53.5	20.9	25.6	2.8	23.3	20.0	50.0	10.0	10.0	10.0
가구규모	1인 가구	41.7	41.7	16.7	2.7	25.0	33.3	66.7	0.0	0.0
	2인 가구	57.1	14.3	28.6	2.9	19.0	25.0	25.0	25.0	0.0
	3인 이상	60.0	10.0	30.0	2.8	30.0	0.0	66.7	0.0	33.3
거주형태	아파트	52.2	21.7	26.1	2.9	21.7	40.0	40.0	0.0	20.0
	단독/다세대 등	55.0	20.0	25.0	2.7	25.0	0.0	60.0	20.0	0.0
주택유형	자가	57.7	19.2	23.1	2.7	23.1	16.7	50.0	0.0	16.7
	전월세/기타	47.1	23.5	29.4	3.0	23.5	25.0	50.0	25.0	0.0
노인	있음	50.0	17.9	32.1	3.1	32.1	22.2	55.6	11.1	0.0
가구원	없음	60.0	26.7	13.3	2.2	6.7	0.0	0.0	0.0	100.0
장애인	있음	52.5	20.0	27.5	2.9	25.0	20.0	50.0	10.0	10.0
	없음	66.7	33.3	0.0	1.7	0.0	0.0	0.0	0.0	0.0
아동	있음	100.0	0.0	0.0	1.0	0.0	0.0	0.0	0.0	0.0
	없음	51.2	22.0	26.8	2.9	24.4	20.0	50.0	10.0	10.0
맞벌이	맞벌이	33.3	66.7	0.0	2.7	0.0	0.0	0.0	0.0	0.0
	외벌이/기타	55.0	17.5	27.5	2.8	25.0	20.0	50.0	10.0	10.0
경제상황	어려움	54.5	22.7	22.7	2.6	27.3	16.7	50.0	16.7	0.0
	보통	52.6	21.1	26.3	2.9	21.1	25.0	50.0	0.0	25.0
	여유로움	50.0	0.0	50.0	3.5	0.0	0.0	0.0	0.0	0.0
사회경제 지위	상	50.0	0.0	50.0	3.5	0.0	0.0	0.0	0.0	0.0
	중	55.0	15.0	30.0	2.9	25.0	20.0	40.0	20.0	20.0
	하	52.4	28.6	19.0	2.6	23.8	20.0	60.0	0.0	0.0
가처분 가구소득	25%미만	51.9	22.2	25.9	2.8	25.9	28.6	42.9	14.3	0.0
	25%~75%	50.0	25.0	25.0	2.8	16.7	0.0	100.0	0.0	0.0
	75%초과	75.0	0.0	25.0	2.5	25.0	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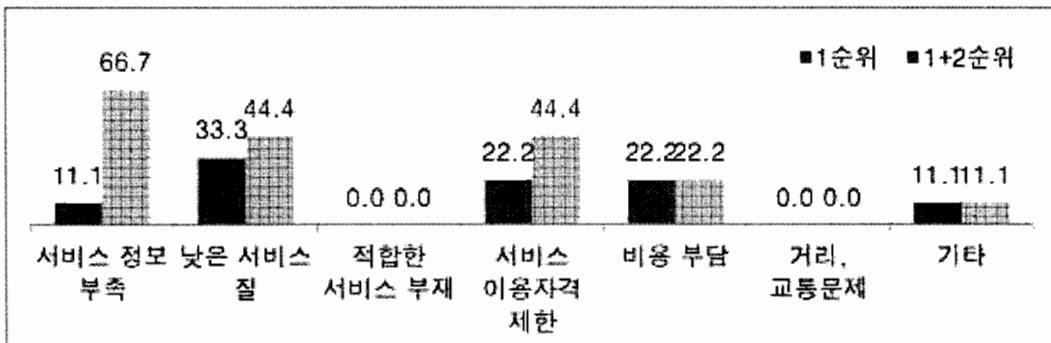
[그림 5-20] 필요한 외부지원/서비스 - 장애인 돌봄 과정(%)



[그림 5-21] 사회보장지원/서비스 인지·신청·이용 경험 - 장애인 돌봄 과정(%)



[그림 5-22] 사회보장지원/서비스 관련 불편사항 - 장애인 돌봄 과정(%)



- 장애인 돌봄 과정 어려움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재 이용률은 11.6%로, 아동돌봄(13.0%), 장애아동 돌봄(50.0%) 등과 더불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함.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가구가 실제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률 자체는 매우 낮은 수준임.([그림 5-21] 참조)
- 장애인 돌봄 과정의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불편사항으로는 낮은 서비스 질(33.3%), 서비스 이용자격 제한과 비용 부담(각각 22.2%), 서비스 정보 부족(11.1%) 등의 순으로 지적됨.([그림 5-22] 참조)
- 한편, 1+2순위를 기준으로 서비스 정보 부족을 꼽은 경우가 66.7%로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낮은 서비스 이용률이 관련 정보 부족에도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음을 추측케 함.
- <표 5-42>는 전체 응답가구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관련 추가문항 내용으로,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인지하고 있는지, 우리 지역이 장

애로 인한 어려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장애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 우선 도움신청경로의 인지정도는 전혀 모름이 36.08%, 들었으나 잘 모름이 37.5%로 인지수준이 낮은 경우가 전체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하였음.
- 가구특성에 따른 인지수준의 차이를 보면, 1인 가구와 노인 가구의 인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장애인 가구의 인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다고 응답한 경우 도움신청경로에 대한 인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인지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낮았음.
- 지역의 도움 수준에 대한 평가는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 점수는 5.2점으로 그리 높지 않았음. 가구특성에 따른 평균 차이는 경제상황과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수록 평가점수가 더 낮았음.
- 충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균 점수는 5.3점으로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평가점수도 더 높았음.